



임진왜란 원인과 책임에 대한 귀인 프레임 구성

류성룡의 『징비록』 내용분석을 통해

김문환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문안나 충북대학교 초빙조교수

이완수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계열 교수

심재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명예교수

Attribution Frame Composition for the Causes and Responsibility of the Imjin War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of Ryu Seong-ryong's 『Jingbi-Rok』*

Moon-hwan Kim**

(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Mun Anna***

(Invited Assistant Professor, Liberal Arts Education Headquarter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Wansoo Lee****

(Professor, Division of Media & Communication, Dongseo University)

Jae-chul Shim*****

(Professor Emeritus, School of Media & Communication, Korea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how Ryu Seong-ryong's Jingbi-rok framed the attribution of the cause of the Imjin War and the responsibility for overcoming it. To this end, we first reviewed whether this text met the conditions of news from a journalistic perspective, and then set up research questions regarding the cause(or failure) of war and the responsibility for overcoming it, and how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ppears according to the type of article. Our content analysis showed that Jingbi-Rok has a script structure following the 5W1H principles, a rhetorical system using analogies,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Dongseo University's "Dongseo Cluster Project" Research Fund of 2022 (DSU-20220003)(이 논문은 2022년도 동서대학교 "Dongseo Cluster Project"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DSU-20220003))

** kimunan2724@hanmail.net, First Author

*** aloft2013@naver.com

**** wansoo1960@gmail.com, Corresponding Author

***** shim@korea.ac.kr

and a spatial-temporal frame. Through the frame analysis of Jingbi-Rok as news text, we presented some theoretical implications. First, the text analysis of Jingbi-Rok confirmed the framing theory that media selectively chooses, emphasizes, and elaborates the values, virtues as well as weaknesses, and strengths upheld by society. Second, the content analysis revealed that when dealing with problems regarding social conflicts, the media presents the definition of the problem, its cause, moral evaluation of the actor, and a frame for solution. Third, the analysis showed the theoretical fact that the media selectively frame the causes and responsibilities of disasters according to the situation. Fourth, the frame of responsibility for a disaster presented by the media was established and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olitical system, such as a monarchy. Fifth, the existing theory that the media use fram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untry's own interests when dealing with international conflicts was also confirmed. Lastly, the analysis of Jingbi-Rok showed that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of news text. In other words, in episodic texts, individuals were considered to be more responsible, while in thematic texts, there was a tendency to attribute more responsibility to the organization or country. Moreover, this study showed some realistic implications as well. Above all, the proportion of attribution to causing war appeared in the order of international,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levels. Second, as for the international level, the cause was powerful enemy and impractical diplomatic relations and at the individual level, the king's failure to use human resources properly, and the incompetence of generals and other military officials who ran away while neglecting their duties turned out to be the cause of failure. At the organizational level, the dysfunction of the administration was the cause. Third, the attribution for overcoming the war showed a high ratio on the individual level such as central management's tactical strategy, general' exemplary attitude, voluntary cooperation of the people, and the king's efforts to overcome the crisis. Fourth, the king's responsibility was not fully addressed considering that the war broke out under a monarchy, where the king makes all the decisions. Fifth, it presented strategic implications for what to prepare for and how to respond to national disasters such as war. Lastly, based on the fact that psychological group thinking had led to a catastrophe, it evoked the importance toward communication of the public as well as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within the government. By analyzing Jingbi-Rok from a journalistic point of view, this paper suggested the possibility that historical records can be studied by applying modern journalism theories.

Keywords: Jingbi-Rok, the Imjin War, News Fram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Causing and Overcoming War

1. 서론

언론은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이 종료되면 그 원인과 책임의 소재를 밝히려 한다. 오늘날에는 특별히 언론이 국가적 위기를 불러온 원인과 배경을 진단하고, 평가하며, 책임을 추궁해 향후 예방책을 제시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21세기에도 언론은 전쟁의 주요 기록자이면서, 평가자이다(Hoskin & O'loughlin, 2010). 사회 공동체는 언론이 제공하는 기록(예: 뉴스)을 통해 전쟁 재난의 실상과 문제를 이해하고,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를 파악한다.

우리는 임진왜란에 대한 역사 기록물 『징비록』을 뉴스 텍스트로 평가하고, 이를 대상으로 전쟁 실패원인과 책임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시도한다. 우리가 임진왜란에 특별히 주목한 것은 이 전쟁이 한국에서 일어난 가장 긴 국제 전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국가재난이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은 수없이 많은 전쟁 가운데 전시 책임자가 전쟁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기록한 『징비록』을 남겼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우리는 『징비록』을 통해 16세기에 조선을 둘러싸고 한·중·일 3국간에 벌인 동아시아 전쟁의 원인과 책임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징비록』에 대한 내용분석은 전쟁 재난에 대한 현실적 위기 대응과 역사적 교훈을 얻는데 그 유용성이 있다고 하겠다. 대항해 시대인 16세기 말에 서에 류성룡이 쓴 『징비록』은 조선의 운명을 비꾼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서인 동시에 평가서이다. 류성룡은 『징비록』을 출간하면서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일의 대강을 기술해 지난 일의 잘못을 징계하여, 뒤에 환난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책을 쓴다”라고 기록 목적을 밝혔다. 이는 오늘날 국가적 재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미디어의 사회적 기능과 유사하다. 심재철(2019)은 오늘날 언론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간원 간원(諫院)을 지냈으며, 전시 재상으로서 류성룡이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는 중군기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한다. 우리는 심재철의 이러한 주장에 주목해 류성룡을 언론인으로, 그리고 역사적 전쟁 기록물인 『징비록』을 뉴스 텍스트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징비록』은 기록자 류성룡이 전시상황을 대국적으로 관찰하고, 종합적으로 기술한 가장 신빙성이 높은 사료(史料)이자, 문적(文籍)으로 꼽힌다(이재호, 2001).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징비록』이 임진왜란을 기록한 여타 문헌인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그리고 『용사일기(龍蛇日記)』에 비해 현장성과 사실성이 가장 앞선다고 평가한다(정해은, 2021). 『징비록』은 저자의 이력 측면에서, 그리고 기록의 특성 측면에서 오늘날의 뉴스 형식에 가장 가깝다고 하겠다. 『징비록』이 지니는 기록의 현장성과 사실성은 전쟁 재난에 대한 원인(류성룡은 이를 '발단(發端)

으로 표현했다), 진단, 그리고 처방에 대한 귀책을 분석하고, 구명(究明)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우리는 『징비록』을 뉴스 텍스트로 평가하는 일차적 근거를 뉴스의 역사에서 찾는다. 뉴스의 역사(a history of news)를 체계적으로 정리 기술한 미첼 스티븐스(Stephens, 1997)에 따르면, 뉴스의 출발은 인류의 언어활동에서 시작됐다. 뉴스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뉴스는 사람들의 소식을 입을 통해, 이 소식을 소리로 전하는 크라이어(crier)를 통해, 설형 문자 기록을 통해, 그리고 역사적 기록물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화 발전해 왔다(Stephens, 1997). ‘역사적 기록물’은 적어도 오늘날과 같은 뉴스 형식은 아니더라도 당시 시대에는 중요한 뉴스 기능을 대행했다. 한 예로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당시 전쟁 상황을 사실에 근거해 기록한 역사 기록물이지만, 오늘날의 전쟁 뉴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Stephens, 1997). 고대 중국에서도 전쟁 소식을 전하거나 조정의 동태를 수시로 전달하는 뉴스가 존재했다. 바로 오늘날의 신문에 해당하는 ‘저보(邸報)’다. ‘저보’는 “전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왕을 알현하고, 아무개가 파직되었으며, 아무개가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조정(정부)의 공식 뉴스 레터의 기능을 했다(Stephens, 1997).

『징비록』은 비록 개인적 비망록(memorandum)이지만, 그 내용은 임진왜란 전시상황을 현장 관찰을 통해 상세하게 기술하는 동시에, 임금이나 조정에 올라온 상소와 잦은 인사발령 등을 사료에 근거해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점에서 뉴스 기능을 한 고대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나 고대 중국 ‘저보(邸報)’와 비슷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류성룡은 오늘날의 저널리스트로, 그리고 『징비록』은 전쟁 상황을 사실에 바탕을 두고 상세하게 적은 역사적 기록물이자 중군기적 뉴스로 평가된다(심재철, 2019). 류성룡 스스로 『징비록』 자서(自序)를 통해 “귀로 듣고, 눈으로 본(임진왜란) 당시의 사적(事蹟)을 기록했다”고 밝혔듯이 『징비록』은 현장의 사실(fact)을 바탕으로 기록하고, 논평하는 오늘날의 뉴스와 다르지 않다. 동시에 『징비록』은 전쟁 상황에 대한 기록자의 관점과 시각이 반영된 프레임(frame)을 전거(典據)로 제시한다(박진철, 2018; 정해은, 2021).

조선시대 전쟁 기록물을 뉴스 텍스트 관점에서 접근하는 학술적 작업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역사적 전쟁 기록물을 탐사뉴스 장르로 보고, 뉴스 구조 관점으로 확장해 살펴보는 도전적 시도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역사적 전쟁 기록물을 단순히 사실 기록이 아닌, 전쟁에 대한 기록자의 관점이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나는지 제시해 볼 수 있다. 셋째는 현장 체험과 사료 위주로 기록된 『징비록』을 ‘미디어 텍스트’의 한 종류로 보고, 이를 언론학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미디어 텍스트가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해 왔다는 점에 주목해 사실의 기록물인 『징비록』을

역사 텍스트가 아닌, 뉴스 텍스트의 한 유형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이런 언론학적 접근법에 호응해 임진왜란의 실상을 가장 상세히 기록한 『징비록』을 ‘전쟁 역사서’가 아닌, 현장 취재에 바탕을 둔 ‘전쟁 기사’로 가정한다. 언론인 류성룡이 『징비록』을 통해 임진왜란의 원인과 실패, 그리고 극복과 종결을 어떤 프레임으로 기록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우리가 뉴스 텍스트로서 『징비록』을 분석해 보려는 목적은 임진왜란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요인과 어떤 행위자가 책임 주체자로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특히 『징비록』 연구를 통해 주위 환경 감시, 사회 제 세력의 연결과 통합, 그리고 문화적 유산을 후대에 전달하는 근대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 전시상황을 현장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징비록』이 임진왜란 패배의 원인과 문제해결의 책임 주체와 요인을 어떤 프레임으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겠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징비록』이 전쟁의 실패 원인과 문제해결의 책임 주체를 왕, 관리, 장수, 백성과 같은 개인 차원으로 프레이밍 하는지, 아니면 중앙조정, 지방관청, 군대와 같은 조직 차원으로 프레이밍 하는지, 아니면 우방이나 적국과 같은 국제환경으로 프레이밍 하는지를 규명해 보겠다. 아울러 책임 주체별로 전쟁 실패와 극복과정에 강조되는 구체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나아가 이들 프레임 제시방식에 따라 임진왜란의 패배 원인과 극복을 위한 책임소재가 개인에게 귀인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회나 국가(조정)에 귀인되고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겠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가재난 상황에서 위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위기대응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해보겠다.

우리는 이를 위해 먼저 『징비록』이 뉴스 텍스트로서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논의하고, 평가한다. 이어 뉴스 텍스트로서 『징비록』이 임진왜란 원인과 실패 그리고 극복과 해결 과정을 기술하면서 어떤 관점을 선택, 강조, 상술되고 있는지 분석해 본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해 『징비록』에 나타난 임진왜란의 재난 프레임이 시사하는 이론적, 역사적 의미를 저널리즘 관점에서 토론해 본다.

2. 이론적 논의

1) 언론인으로서 류성룡, 뉴스 텍스트로서 『징비록』

『징비록』을 뉴스 텍스트로 보는 첫 번째 근거는 기록자인 류성룡의 이력이다(심재철, 2019). 류성룡은 전시 재상이 되기 이전에 조선의 언론 삼사라 불리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에서 초급관

리로 시작해 그 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대사간, 대사헌, 대제학까지 지낸 당시의 언론인이었다(심재철, 2019; 임철순, 2020). 특히 사간원(司諫院)은 임금과 조정 관리의 언행과 정책을 비판적으로 접근해 그 실책이나 실정을 논박하는 글을 써 올리는 간언(諫言) 기관이다. 여기서 일하는 간관(諫官), 일명 언관(言官)들은 비판적 시각에서 국정을 관찰, 검토, 분석, 그리고 논평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사간원에 속하는 언관은 오늘날 언론사에 적을 두고 취재 활동을 하는 기자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다(심재철, 2019). 예컨대 조선시대 사간원 소속 언관들은 1973년 공사화 이전의 KBS나 정부가 운영하는 KTV 국민방송, 국회가 운영하는 NATV 국회방송 직원 들처럼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 취재와 언론활동을 수행했다.

사간원 소속 언관들의 주요 업무가 왕과 조정 관료들의 직무수행, 정책결정, 인사문제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간언을 올리는 역할이었다는 점에서 언관이었던 류성룡은 오늘날 권력 감시 기능을 맡는 일종의 국영 언론인이었다. 조정 내 승정원은 조선 전기부터 조선의 최초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조보(朝報)'라는 일종의 국영 신문을 발행했다(김영주·이범수, 2017). 오늘날의 신문과 유사한 '조보'가 조선 사회에 처음 등장한 시기는 종종 15년인 1520년경으로 임진왜란 당시에 이미 '조보' 발행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조보'를 기록한 언관들은 지방관사에서 올라온 보고자료, 상소문, 국왕의 공식 하명사항, 조정이 내는 공식문서 등 객관성이 담보된 문서 자료에 근거한 글쓰기를 했다는 점에서 언론인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1566년에 관직에 나간 류성룡은 당시 사간원 언관으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장 사실 확인, 객관적 자료 근거 제시와 같은 취재 관행을 익히고, 언론인으로서 자세와 자질을 체득했다고 볼 수 있다. 언관들의 기록방식은 객관적인 팩트, 즉 직접 목격한 사건,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보도자료, 공문서, 문서화된 각종 보고자료, 진술자료 등)를 바탕으로 하는 오늘날의 저널리즘 글쓰기와 유사하다. 『징비록』은 류성룡이 관직에서 물러난 뒤 기록된 것이긴 하지만, 그의 언관으로서의 오랜 경험과 현장의 사실을 중심으로 적어나간 기록방식에 비춰볼 때 일반 기록문서와는 다르다고 추정된다. 사간원 책임자인 대사간을 오랜 기간 지내면서 국정을 비판하거나 대안을 제시했던 이율곡이 신문사 내의 논설을 담당하는 주필이었다면, 임진왜란을 현장에서 겪으면서 『징비록』을 남긴 류성룡은 사실(史實)에 충실한 중군기자로 평가된다(임철순, 2020).

『징비록』을 뉴스 텍스트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객관적 자료의 산물이란 점이다. 국보 132호 『징비록』은 임진왜란 전시 재상으로 재난 극복을 총괄했던 류성룡이 고향인 안동 하회마을로 낙향해 집필한 일종의 재난 관리와 그러한 전쟁이 후대에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관리 기록서이다(장준호, 2019). 서에 류성룡은 1598년 복인으로부터 탄핵을 받아 파직된 뒤, 상소문, 외교문서, 조정의 공식문서, 개인 서찰 등의 소장 자료를 바탕으로 전쟁의 시작과 전

개과정 그리고 결말을 꼼꼼히 『징비록』에 기록했다(윤종성, 2019). 전시 재상이었던 류성룡이 기록 자료와 함께 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르포식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비록』은 현대 탐사 저널리즘의 특성을 갖추었다. 류성룡은 성리학에 기반해 추상적인 담론을 중심으로 기록했던 당시의 일반 관리들과는 달랐다. 류성룡은 『징비록』에서 임진왜란으로 황폐화된 수도 한양과 평양 모습, 그리고 전국에서 먹을 것이 없어 산자가 죽은자의 인육을 뜯어 먹거나 죽은 엄마의 젖을 물고 우는 어린 아기의 모습과 같은 전쟁의 참상을 현대 중군 기사처럼 생생하게 묘사했다(심재철, 2019). 『징비록』은 다양한 공식 문서들과 함께 철저한 현장체험과 탐문을 바탕으로 임진왜란 상황을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뉴스 텍스트 유형에 비교적 가깝다. 물론 『징비록』 말고도 임진왜란 당시의 전시 상황을 기록한 문적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순신의 『난중일기』, 강항의 『간양록』, 그리고 『선조실록』과 『수정 선조실록』이 있으나 이들은 제한된 전시(戰時) 공간에서 개인적 생각과 감상을 중심으로 적었거나 현장 탐문과 체험을 기록에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류성룡은 『징비록』을 기록하면서 현장성과 사실성을 특히 강조했다(이재호, 2001). 그의 이런 기술방식은 오늘날 기자들이 현장을 취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대책과 예방책을 담아 르포 뉴스로 전달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물론 임진왜란 당시 조선 사회에는 전쟁 재난의 실재 원인이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제(agenda)를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보도하는 오늘날과 같은 미디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기자라는 별도의 직업도 없었다. 하지만, 전시상황을 현장에서 보고, 듣고 기록한 『징비록』은 특이하게도 오늘날 신문 르포 기사와 매우 닮았다(심재철, 2019). 『징비록』은 임진왜란 관계의 사실을 기록한 저술이자, 전란과정의 처음과 끝을 상세히 담은 사필(史筆)이기도 하다(이재호, 2001). 뉴스 텍스트는 언론인이 특정 사실을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구성과 진술을 하는 사회적 기록서이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류성룡이 임진왜란의 실상을 현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한 『징비록』 역시 일정한 해석틀을 갖춘 뉴스 텍스트의 범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 기록물인 『징비록』이 뉴스 텍스트의 조건에 얼마나 타당성 있게 부합하는지 체계적으로 밝힌 사례는 없다.

『징비록』을 뉴스 텍스트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세 번째 근거는 2차 세계대전을 치른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W. Churchill)의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록물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처칠은 2차 세계대전 당시 5년 간 총리로, 그리고 국방부 장관으로 전장을 누비면서 전쟁 실상을 상세히 적은 『2차 세계대전(The Second World War)』이라는 기록물을 남겼다(Churchill, 1959). 처칠이 직접 쓴 『2차 세계대전』은 전쟁 수행과정에 정책을 결정하고, 전란 중 스스로 겪은 일화와 국내 정치 상황, 외국과의 갈등, 전쟁 피해 상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군 기자들의 현장관

찰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맥락에서 임진왜란 당시 7년간 전시 재상으로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겪은 여러 일화와 외교 갈등, 그리고 전장에서 벌어진 참극을 소상히 적은 류성룡의 『징비록』도 종군기적 기록물의 범주로 볼 수 있겠다. 종군기자들이 전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르포식으로 기록하듯이, 처칠과 류성룡은 전쟁의 실상을 1차 사료로 생생하게 기록함으로써 '전쟁 저널리즘'의 전범을 보여줬다. 처칠이 젊은 시절 종군기자로 직접 전장을 누빈 기자 경험을 쌓은 것처럼, 류성룡 역시 시간원 간원으로 기사 작성의 경험을 쌓은 이력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처칠의 『2차 세계대전』이나 류성룡의 『징비록』 모두 종군기자들의 취재일기 방식을 따르고 있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두 기록서는 전쟁 발발 전의 상황부터 전쟁 전개와 종결과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보식으로 기록해 전쟁 저널리즘의 성격을 드러낸다. 처칠과 류성룡은 오늘날과 같은 저널리스트 신분은 아니었지만, 전쟁을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오늘날의 종군 기자와 큰 차이가 없다.

전쟁 저널리즘의 핵심은 전시상황을 보고, 들은 대로 취재해 문제점을 드러내고, 시사점을 던져, 공동체에 교훈을 주는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날 언론인 역할에 비견되는 시간원 간원을 지낸 류성룡이 임진왜란 전시상황을 개인의 직접적인 관찰과, 다양한 공식 문서를 바탕으로 현장성과 사실성을 반영해 기록한 『징비록』을 전쟁 뉴스 텍스트로 간주한다.

2) 뉴스 텍스트의 조건과 특징

『징비록』이 방대한 자료와 참여관찰을 바탕으로 사실을 체계적으로 기술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뉴스 텍스트의 구조적 조건을 갖추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는 『징비록』이 오늘날의 뉴스의 구성조건과 공통점이 있는지 밝혀보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저널리즘 관점에서 뉴스 텍스트를 통사론적(syntactical) 구조, 대본(script) 구조, 주제적(thematic) 구조, 수사적(rhetoric) 구조라는 4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구분해 정의한다(Pan & Kosicki, 1993; 심재철, 2019).

뉴스 텍스트에서 통사론적 구조는 역피라미드 방식의 기사를 가리킨다(Pan & Kosicki, 1993). 역피라미드 방식이란 제목, 리드(lead), 사건 내용과 배경을 담은 본문, 그리고 결론 등의 요소들이 연속성 있게 조합된 구조를 말한다. 『징비록』이 이런 역피라미드식 기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뉴스 텍스트의 범주로 볼 수 있다. 뉴스 텍스트에서 대본 구조는 뉴스 가치가 있는 사건들과 수용자를 연결하는 '수용자 지향성 (audience orientation)'으로 규정된다(Bird & Dardenne, 1988; Pan & Kosicki, 1993). 뉴스 대본은 '이야기 문법(story grammars)'이란 특별한 구조를 갖는다(van Dijk, 1988). 뉴스 대본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에 해당하는 육하원칙에 따라, 시작, 클라이맥스, 종결을 갖춘 사건의 완성된 이야기 구조를 갖춘다.

뉴스 텍스트에서 대본 구조가 개인화, 과편화, 극화되는 이유는 이야기의 속성인 드라마, 행동, 성격, 그리고 인간 감정을 담아내기 때문이다(Bennett, 2016; Pan & Kosicki, 1993). 다시 말하면, 대본 구조는 인간의 회로애락을 전달하기 위해 사랑과 미움, 갈등과 고통, 역경과 좌절, 승리와 환호, 불굴의 의지와 고난극복과 같은 현장감과 생동감을 극대화하는 내러티브형 기사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박재영, 2020). 우리는 이러한 글쓰기 스타일이 현대 저널리즘만의 특징이 아니며, 현장의 사실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과거의 여러 역사적 기록물인 헤로도토스의 B. C 5세기 『역사』를 시작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징비록』, 그리고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인류사 2500여년을 관통하는 전쟁 사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뉴스 텍스트의 주제적 구조는 뉴스 기사가 특정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 그 사건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특정 주제나 이슈, 인물을 현저하게 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널리스트가 행위를 관찰하고 정보원의 말을 인용하는 형태로 사실이나 증거를 재현할 경우 주제적 구조로 볼 수 있다. 뉴스는 일반적으로 특정 이슈에 관련된 이벤트, 행위, 그리고 진술문을 보도한다. 이 과정에 뉴스 텍스트는 다양한 하위주제와 연결되는 핵심적인 주제를 갖춘 다층적인 위계 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뉴스 텍스트에서 수사학적 구조는 언론인들이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비유법, 사례, 캐치프레이즈, 묘사, 비주얼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Gamson & Modigliani, 1989; Pan & Kosicki, 1993). 수사학적 구조는 뉴스 전달과정에 보도의 생생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동원하는 다양한 표현장치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순히 역사적 기록물로 이해해 왔던 『징비록』이 현대 저널리즘의 뉴스 텍스트의 조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팬과 코시키 (Pan & Kosicki, 1993)가 제시한 뉴스 텍스트 조건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징비록』이 위의 설명대로 뉴스 텍스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오늘날의 뉴스와 같다고 규정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뉴스 텍스트는 특정한 형식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뉴스의 구조는 전달과정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이 가능하다(박재영, 2020). 뉴스는 공적인 사안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리는 이른바 육하원칙에 근거해 사실을 전달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기사 구조는 여러 유형으로 다르게 변주된다(Knobloch, Patzig, Mende, & Hastall, 2004). 기사 작법이 중요한 사실을 순서대로 써내려 가는 전통의 역피라미드에서 흥미로운 사례를 이야기 형식으로 쓰는 오늘날의 내러티브로 진화 발전한 것이 한 예이다. 박재영(2020)의 주장대로 “뉴스는 이야기(news is story)”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고정된 틀로 뉴스를 규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징비록』을 뉴스의 텍스트로 간주한 것도 뉴스 형식의 다양한 변주와 유동성을 고려해서다.

3) 전쟁 재난 이슈와 뉴스 프레임

커뮤니케이션 텍스트로서 『징비록』은 특정한 프레임을 강조하는 전쟁 기록물이다(심재철, 2019). 『징비록』이 어떤 프레임으로 기술됐는가를 살펴보려는 이유는 『징비록』이 단순한 역사적 기록서가 아니라, 임진왜란이라는 전시상황을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박진철, 2018). 프레임은 기자들이 사회적 현상을 구성할 때 인지하고, 평가하고, 규정하는 일종의 ‘해석적 틀(schemata of interpretation)’을 제공한다(Goffman, 1974; Pan & Kosicki, 1993). 기자들은 다량의 정보를 수용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체계적인 선별, 강조, 그리고 배제의 과정을 거친다(Gitlin, 1980). 언론은 게이트키퍼를 통해 사회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책임 주체를 특정 커뮤니케이션 맥락 속에서 제시한다(Entman, 2007; Iyengar, 1991; Kim, Carvalho, & Davis, 2010; Kim & Tellen, 2017). 임진왜란 실상을 기록한 류성룡의 『징비록』 역시 당시 조선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맥락 속에서 전란의 원인과 해결 프레임을 드러냈다(박진철, 2018)는 점에서 뉴스 텍스트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뉴스 프레임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특정 가치를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표현 장치로 간주된다(이원수·김찬석, 2019). 미디어가 표현하는 행위는 수많은 사실 가운데 그 사회가 강조하는 가치와 미덕을 갖춘 몇 가지 특정 사실을 선택해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Hume, 2000). 미디어가 설정하는 프레임은 선별(selection)과 현저성(salience)을 통해 드러나며, 인지된 현실의 특정 측면들이 선택되고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 기능을 한다(Entman, 1993). 따라서 『징비록』이 임진왜란의 패배 원인과 문제 해결책을 어떻게 기술했으며, 초기의 전쟁 실패와 그 극복과정을 어떻게 프레임화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디어는 국가적 갈등 이슈를 다룰 때 어떤 식으로든지 특정 프레임을 강조하는 식으로 뉴스를 구성한다. 미국사회에서는 오랫동안 기자들이 국제문제나 분쟁을 ‘적’과 ‘친구’라는 이분법적 냉전 사고에 바탕을 두고 ‘선’과 ‘악’이 대립하는 프레임으로 접근했다(Norris, 1995). 2003년 이라크 전쟁 뉴스를 다룬 미국과 스웨덴 언론의 보도 내용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미국 언론은 주로 갈등 프레임을, 스웨덴 언론은 책임 프레임과 반전시위 프레임을 강조해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Dimitrova & Strömbäck, 2005). 2001년 9월 11일 무역센터 테러에 대한 미국 언론의 보도 프레임 분석 연구에서도 ‘전쟁’과 ‘범죄’라는 제한된 프레임이 두드러졌다(Edy & Meirick, 2007). 기록자가 강조하는 사회적 프레임은 늘 일관된 방향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

해 박진철(2018)은 『징비록』과 『난중일기』 기록방식 분석을 통해 역사 기록들은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또 상황과 필요에 따라 특정한 역사적 사실을 선택하거나 배제한다고 밝혔다. 언론은 전쟁과 같은 국가 간 갈등이슈를 다룰 때 일정 부분 자국 중심의 특정 프레임을 피할 수 없다. 이처럼 기록자가 국가적인 갈등이슈를 다룰 때 좁게는 개인 기록자의 관점에서, 넓게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기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류성룡이 『징비록』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공을 앞세우거나 자신의 당파(예: 남인) 인물에 대해 보다 우호적으로 다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박진철, 2018; 정해은, 2021).

기록자의 이런 프레임 편향성은 현대 언론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날 기자들은 객관적이기 보다는 인지적 한계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편향된 시각을 자주 드러낸다(Karamshuk, Lokot, Prymak, & Sastry, 2016; Stocking & Gross, 1989). 언론의 자국적 편향성은 엔트만(Entman, 1991)의 연구에서도 명확히 입증된 바 있다. 엔트만은 미국 언론이 구소련의 1983년 대한항공기 격추사건과 미국의 1988년 이란 비행기 격추사건에 대한 뉴스 프레임 비교 분석을 한 결과, 미국 언론들은 구소련의 대한항공기 격추사건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범죄행위로 보도한 반면에, 미국의 이란 비행기 격추사건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불가피한 복잡한 기술적 관점에서 보도했다. 자국의 입장에 따라 비슷한 사건을 상반된 프레임으로 구성해 보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디어는 이처럼 자기가 속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de Beer & Merrill, 2004). 엔트만은 언론의 이런 보도경향을 과거 냉전 시대 미국에서 외신뉴스를 지배하던 ‘냉전(cold war)’ 프레임의 사례로 설명한다. 미국 언론이 해외 특정 국가 안에서 무력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내전(civil war)’이라는 ‘문제(problem)’로 규정하고, ‘원인(cause)’을 공산주의자의 반란에서 찾는다. 니카라과 반군의 공격성에 대해서는 반대로 ‘도덕적 평가(moral judgement)’를 내리고, 미국의 군사개입을 정당화하는 ‘해결책(remedies)’을 뉴스 프레임으로 제시한다(Entman, 1993). 마찬가지로 『징비록』의 기록 내용 역시 이런 편향성이 배제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박진철, 2018). 임진왜란은 외부적으로 조선, 일본, 그리고 명나라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내부적으로는 당파 간 입장이 서로 달라 기록자인 류성룡의 말대로 철저히 ‘사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기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류성룡이 임진왜란의 실상을 직접적인 관찰과 사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징비록』 분석이 전쟁 재난에 대한 원인과 귀책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언론은 전쟁 재난 기록과정에 보이는 편향성과는 관계없이 재난의 원인과 평가, 그리고 대책을 제시한다는 보도 원칙을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재난사고에 대한 언론 보도가 원인과 결과에 대한 평가에 집중하는 이유는 효과적인 위기 대응책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Houston, Pfefferbaum, & Rosenholtz, 2012). 언론이 구성하는 프레임은 일반적으로 재난에 대한 문제 정의, 원인 진단, 도덕적 평가 내리기, 그리고 해결책 제시와 같은 사회적 기능을 한다(Entman, 1993). 일본의 조선 침략을 기록한 『징비록』이 “전란의 발단을 구명하고, 지난 일의 잘못을 징계하여, 미래의 환난을 방지 한다”고 밝힌 기록 목적도 엔트만의 뉴스 프레임 구성체계인 문제 정의, 원인 규명, 도덕적 평가, 대안제시와 유사하다. 따라서 『징비록』이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재난에 대해 어떻게 문제 정의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원인에 대해 어떤 윤리적 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해결책은 어떤 요인에서 찾고 있는지 프레임 개념을 적용해서 살펴보겠다.

4) 뉴스 프레임과 책임 귀인의 특성

미디어는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프레임을 구성할 때 그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미디어는 사회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기술할 때, 그 책임을 누군가에 전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은 언론의 사회적 기능이 환경감시와 비판에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다. 뉴스 텍스트에서 책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문제의 원인과 책임 주체,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요인과 책임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Kim et al., 2010; Kim et al., 2017). 우리가 뉴스 텍스트로서 『징비록』을 분석해 보려는 목적도 16세기 동아시아 정세를 바꾸어 놓은 임진왜란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요인과 어떤 행위자가 책임 주체자로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한 개인이 기록한 『징비록』 텍스트 분석만으로 임진왜란의 원인과 책임 주체를 모두 보여줄 수는 없다. 하지만 『징비록』은 다른 어떤 기록물 보다 임진왜란의 실상을 가장 사실적으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전쟁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비교적 근접하게 밝혀 볼 수 있다.

『징비록』은 저자가 “전란의 발단을 구명하는데 있다”고 기록 목적을 밝힌 만큼 임진왜란의 성패를 반성고찰하고, 이를 통해 책임의 소재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유용한 텍스트이다. 모든 국가적 재난의 원인과 해결 제시에는 책임의 문제가 따른다. 그것은 주로 역사적 기록물이나 뉴스 텍스트를 통해 드러난다. 일부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뉴스 속에 나타난 사회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책임 주체가 뉴스 프레임 구성에 따라 달리 귀인 된다는 점을 확인해 왔다(Kim et al., 2010, Iyengar, 1996). 이들 가운데 아이엔가(Iyengar, 1996)는 국가적 의제에 대한 책임 귀인으로 원인 책임(causal responsibility)과 해결책임(treatment responsibility)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고, 이들 개념은 정치적 이슈나 이벤트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

한다. 아이엔가는 이들 두 요소가 어떤 사회적 문제가 왜 일어났고, 어떻게 해결 과정을 거쳤는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로 보았다.

국가적 의제에 대한 책임의 귀인(attributions of responsibility) 문제에 주목한 아이엔가(Iyengar, 1996)는 뉴스 구성방식을 크게 일화적 프레임(episodic frame)과 주제적 프레임(thematic frame)으로 구분하고, 이들 프레임 방식에 따라 사회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책임귀인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이 일화적 프레임을 통해 사회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더 귀인하고, 주제적 프레임을 통해서서는 이를 조직이나 사회에 더 귀인한다고 보았다. 그는 TV 뉴스의 경우 일화중심 소재로 보도할 때 빈곤이나 테러 같은 국가적 재난에 대한 책임을 개인 차원으로 귀인해 프레임링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세일과 그의 동료들(Kim et al., 2010)은 아이엔가의 책임 귀인 프레임 개념을 적용해 미디어의 빈곤 담론연구를 수행한 결과, 미디어는 일화 중심 프레임과 주제 중심 프레임에 따라 그 책임을 개인과 사회(국가) 차원(Iyengar, 1996)으로 달리 기술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김세일 등은 일화적 뉴스 기사의 경우는 가난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반면에, 주제적 뉴스 기사의 경우는 가난의 책임이 사회 혹은 국가에 귀인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한다. 김세일과 그의 연구 동료들이 제시한 뉴스 프레임 특성에 따른 책임 귀인의 차이는 아이엔가의 주장과 부합한다. 나아가 김세일 등은 신문이 TV에 비해 주제 중심 프레임을 더 많이 다룬다는 점에 주목해 가난에 대한 원인 책임을 사회 차원에 둘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한 결과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주제 중심 기사를 더 많이 다루는 신문이 TV와 비교해 가난의 책임을 사회 차원으로 더 귀인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김세일 등은 누가 문제를 제공했느냐의 원인 책임과 누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의 해결책임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자들은 빈곤에 대한 개인차원 프레임에서 개인적 원인책임으로 가족파산, 교육혜택 부족, 신체조건을, 개인적 해결책임으로 교육과 더 좋은 선택을 들었다. 그리고 빈곤에 대한 사회차원 프레임에서는 사회적 원인 책임으로 경제 불황, 낮은 임금, 정부지원 미흡을, 사회적 해결책임으로 교육지원과 더 나은 경제정책을 들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보면, (뉴스)프레임 유형에 따라 책임의 귀인주체가 다르거나, 또는 책임의 귀인주체에 따라 책임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미디어의 프레임 제시방식에 따라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 귀인 방식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병폐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아이엔가(Iyengar, 1996)는 미디어가 국가적 재난의 책임을 개인 차원으로 돌리는 뉴스 프레임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정치적 난제와 정치지도자의 연결고리를 약화시켜 중요한 정치담론을 사소하게 만들어 버리며, 동시에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면죄부를 준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미디어가 사회 차원의 중요한 문제를 개인 차원으로 축소시킬 경우

사회 차원의 원인과 책임은 무시되고 개인 차원의 원인과 해결책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Montgomery, 1990). 미디어가 프레임에 따라 전쟁 원인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연구도 보인다. 캄하위(Kamhawi, 2002)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보도 분석을 통해 일화중심 뉴스는 갈등 프레임을, 주제 중심 뉴스는 책임 프레임을 각각 강조해 전쟁 원인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다.

사회문제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책임 프레임을 어느 하나의 지점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이완수·심재웅·심재철, 2008; Iyengar, 1996). 대신 언론은 보도를 통해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시점 프레임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현재 시점 프레임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Chyi & McCombs, 2004). 언론은 주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 프레임을 더 많이 제시한다. 공간적으로는 보도 프레임이 개인, 지역, 사회, 국가(정부), 그리고 국제사회에 걸쳐 다양한 차원으로 제시된다(Chyi & McCombs, 2004). 뉴스 이벤트의 공간적 프레임에서 개인적 차원은 사건의 책임을 개인으로 제한하는 경우이며, 지역적 차원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 특정 지역이나 장소 등을 의미한다. 사회적 차원은 뉴스 이벤트가 사회적 또는 국가적 관점에서 프레임되는 경우이며, 국제적 차원은 국가 간 권력 관계나 군사적 행동에 대해 프레임화되는 경우이다.

휴스턴과 그의 연구 동료들(Houston et al., 2012)은 재난보도에서 미디어는 공간적 프레임을 개인과 공동체(지역사회, 국가)로 나누고, 재난이 가져온 피해나 해결의 책임을 찾고 있음을 밝혀냈다. 미디어가 개인적 차원에서는 재난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지역과 국가와 같은 공동체 차원에서는 재난이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은 물론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 환경(built environment)에 미치는 영향 프레임과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 프레임을 중심에 놓고 보도하고 있음을 발견했다(Houston et al., 2012). 독일의 5개 정당이 의회에서 행한 아프가니스탄 전쟁 정책관련 발언에 대한 독일 슈피겔지 보도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 공간과 추상적 공간 프레임을 동시에 보여준다(van Efferink, 2019). 에페링크는 전쟁에 대한 언론의 보도 프레임 분석에서 영토, 정체성, 주권, 안전이라는 프레임으로 나눠 그 안에 내재하는 공간(space)과 권력(power)의 의미로 논의했다. 프레임은 이처럼 시·공간적으로 다양하게 제시되면, 상황 전개에 따라 다르게 구축된다.

예를 들어 책임 프레임을 『징비록』에 나타난 전쟁 원인과 결과에 대한 프레임 분석에 적용하면, 왕이나 관리, 장수와 같은 개인에서부터 백성이나 의병 같은 공동체, 지방관청과 같은 지역, 조정과 같은 국가, 그리고 명나라, 일본과 같은 국제사회에 이르기 까지 다차원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유성룡의 『징비록』 프레임 분석에서 이슈 접근방식 즉, 일화 중심 프레임 기사인

지, 주제 중심 프레임 기사인지에 따라 임진왜란 원인과 문제해결을 개인, 사회,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 차원 가운데 어디에 더 책임을 귀인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3. 연구문제

이 연구는 선행 연구(심재철, 2019)의 새로운 관점에 주목해 『징비록』을 뉴스 텍스트로 가정했다. 이에 따라 『징비록』이 뉴스 텍스트 조건에 부합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기 위해 『징비록』 텍스트가 어떤 뉴스 기사 형식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연구문제를 이론에 근거해 제시했다.

저널리즘 이론에 따르면 뉴스 텍스트는 특정 기준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 예컨대, 팬과 코시키(Pan & Kosichi, 1993)는 뉴스 텍스트를 그 구조에 따라 ‘통사론적 구조’, ‘대본 구조’, ‘주제 구조’, ‘수사학적 구조’로 구분했다. 예를 들어, 통사론적 구조는 오늘날의 기사 형식 가운데 하나인 역피라미드가 해당된다. 역피라미드 형식의 기사는 뉴스 텍스트에서 리드(lead)에 주요 핵심 정보를 담고 내용 중요도 순서대로 기술해나가는 방식이다. 대본 구조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현장감과 생동감을 극대화시키는 뉴스 텍스트 유형이다. 이에 반해 주제적 구조는 문제의 진단, 원인, 그리고 해법제시 등을 갖춘 경성뉴스 텍스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엔가(Iyengar, 1996)가 말한 일화적 프레임이 대본 구조 뉴스 텍스트에 가깝다면 주제적 프레임은 주제적 구조에 가깝다고 하겠다. 그리고 뉴스 텍스트에서 수사학적 구조는 기자들이 동원하는 일종의 표현 장치들로 구성된 뉴스 텍스트로 볼 수 있다.

한편, 테러, 전쟁과 같은 재난 이슈에 대한 보도는 시간과 공간 프레임으로 구성되며, 상황 전개에 따라 동태적으로 프레임이 변화한다(이완수·심재웅·심재철, 2008; Chyi & McCombs, 2004; Houston et al., 2012). 시간적으로 과거·현재·미래, 공간적으로는 개인(individual)·공동체(community)·지역(regional)·사회(social or national)·국제(international) 차원으로 재난 보도 텍스트의 프레임을 구분해 볼 있다.

위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저널리즘 관점에서 『징비록』 텍스트는 어떠한 기사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그리고 『징비록』이 임진왜란 전시상황이 시간적으로 언제, 공간적으로 어디에서 전개되는지를 살펴보겠다. 전쟁 같은 재난 연구는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 전쟁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상에 나타난 시·공간적 프레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1. 『징비록』은 어떤 뉴스 기사 형식을 갖추고 있는가?

연구문제 1-2. 『징비록』은 어떤 사·공간적 프레임으로 사건을 기록했는가?

두 번째 연구문제는 첫째, 『징비록』 텍스트가 임진왜란 실패와 극복의 책임을 차원(개인, 조직, 국제, 초자연)에 따라 누구에게, 또 무엇에 귀인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둘째, 『징비록』 텍스트에 나타난 임진왜란 실패와 극복에 대한 차원(개인, 조직, 국제, 초자연)별 요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 특히 기존 연구(Kim et al., 2010; Kim & Tellen, 2017)는 책임 귀인의 구체적인 내용, 즉 책임 요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 연구는 책임 요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시도한다. 위의 두 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탐구는 우리의 주된 관심 사항이다.

임진왜란은 왕을 정점으로 문신과 무신 관료들의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일본과 명나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조선에서 일어난 동아시아 전쟁의 하나이다. 따라서 전쟁의 원인과 문제해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시사점을 준다. 일본의 기습으로 시작된 임진왜란 초기에 대응 실패원인과 전시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 『징비록』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에, 그리고 어떤 요인들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밝혀봄으로써 임진왜란이라는 국가 재난의 한계와 문제점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2-1. 『징비록』은 임진왜란 실패와 극복의 책임을 차원(개인, 조직, 국제, 초자연)에 따라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 귀인하는가?

연구문제 2-2. 『징비록』에 나타난 임진왜란 실패와 극복에 대한 차원(개인, 조직, 국제, 초자연)별 요인은 무엇인가?

선행 연구들(Kim et al., 2010; Kim & Tellen, 2017)은 기사 구조와 책임 프레임 사이의 차별적 상관성을 입증했다. 가난과 비판 문제를 보도한 미디어가 일화 중심 프레임 기사에서는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더 귀인하고, 주제 중심 프레임 기사에서는 그 책임을 사회나 집단차원에 더 귀인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춰볼 때 『징비록』 텍스트 역시 그 구조에 따라 전쟁원인과 극복에 대한 책임귀인이 다를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일화 중심적인 텍스트 구조라면 개인차원에 책임을 귀인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고, 주제 중심적인 텍스트 구조라면 조직이나 사회차원에 책임을 더 귀인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징비록』 텍스트는 왕조 국가인 전

근대 시대에 작성된 전쟁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가 오늘날 이뤄진 기존 연구(Kim et al., 2010)와는 다른 양상으로 책임 귀인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전쟁 실패 요인에 대해서는 조정이라는 국가에 책임을 귀인하면서도 사실상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 왕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전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란 극복 과정에 대해서는 왕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왕 개인의 역할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 또한 당시에 ‘천지신명’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에서 전쟁 실패 원인이나 극복 요인을 찾았을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차원을 세분화하는 대신에 개인, 조직, 국제, 초자연 등 중위 차원으로 구분해 텍스트 유형별에 따른 책임 귀인의 차이를 살펴보겠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3. 『징비록』은 텍스트 유형에 따라 차원별(개인, 조직, 국제, 초자연)로 책임을 어떻게 귀인하는가?

4. 연구방법

1) 분석자료와 분석단위

이 연구의 분석 텍스트는 한문 원전이 아닌 이재호(2001)가 번역 감수한 국역 『징비록』을 대상으로 했다. 국역 『징비록』은 ‘징비록 1권’, ‘징비록 2권’, ‘녹후잡기’, ‘임진왜란 관련기사’ 등 모두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징비록 1권’ 7장, 징비록 2권 9장을 합해서 모두 16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류성룡이 직접 쓴 원전에는 오늘날 저술개념의 장(章)이라는 표현이 없고, 번역자가 번역상 편의적으로 표기했다. 번역자가 독자들이 읽기 편하도록 내용적으로 구분되는 지점에서 임의로 장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징비록 2권은 8장에서 시작돼 16장에서 끝나는데, 8장 “명나라 군사의 내원과 평양수복”에서 9장 “전선의 교착과 화의 제기”로 내용이 바뀐다. ‘녹후잡기’는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진왜란 관련기사’는 독특하다. ‘임진왜란 관련내용’은 장(章) 대신 24개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류성룡의 원본에는 각 텍스트별로 현대적 의미의 기사처럼 제목을 달아 놓았다. 류성룡이 붙인 제목을 예로 들면 “記壬辰以後講兵事”이다. 우리말로 풀면 “임진년(1592년) 이후 (명나라에) 병력요청 사실을 기록하다”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관련 문서를 기초로 당시 청병 사실과 상황을 기록했다.

이 기사는 현대적 의미의 헤드라인을 갖춘 기사와 상당히 유사하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직접 경험하고 쓴 현장 취재 기사(명나라에서 파견된 사신 사헌을 접대하며 겪은 일을 기록한 기사), 현지를 다녀와 쓴 르포르타주 기사(임진강 부교 건설 현장을 다녀와 기록한 기사), 다른 사람의 기록을 옮겨 적은 일종의 보도자료에 기반한 기사(오성 이항복의 기록을 옮겨 적은 기사), 자료를 찾아 기록한 데이터 저널리즘 성격의 기사(조총 제조에 관한 기사, 화포 제조에 관한 기사), 정책을 실행하고 효과를 기록한 관보 성격의 기사(중강진에 무역시장 개설 기사), 전해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록한 패관 문학성 기사(정토사 중이 왜군을 죽인 이야기) 등이다.

‘징비록 1권’ 7장, ‘징비록 2권’ 9장, ‘녹후잡기’ 3장, ‘임진왜란 관련기사’ 24개로 구성된 43개 텍스트를 그대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분량이 들쭉날쭉해 각각을 하나의 분석 자료로 보기에 표면 타당도(face validity)가 떨어진다. 가령, ‘임진왜란 관련기사’ 가운데 ‘중강진에 시장개설 기사’는 18줄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임진왜란 관련기사’의 ‘명나라 사신 사헌 접대 기사’는 358줄이나 된다. 번역본 징비록은 1개의 기사라도 분량이 길 경우 적절한 양으로 나눠 구성했다. 앞에서 예로 든 ‘명나라 사신 사헌 접대기사’의 경우 358줄 기사를 86줄, 78줄, 102줄, 92줄의 4개로 나눠 다뤘다. 이렇게 분량이 많은 경우 분리하는 원칙을 번역자는 ‘임진왜란 관련기사’뿐 아니라 ‘징비록 1권’, ‘징비록 2권’, ‘녹후잡기’에도 같이 적용했다.

이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별 기사이다. ‘징비록 1권’은 42개, ‘징비록 2권’은 25개, ‘녹후잡기’는 11개, ‘임진왜란 관련기사’는 42개의 기사로 분류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총 120개 텍스트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2) 분석범주와 조작적 정의

분석 범주(category)는 크게 『징비록』이 어느 뉴스 텍스트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 임진왜란 전쟁이 전개되는 시·공간적 프레임은 무엇인지, 임진왜란 원인과 극복과정에 책임 귀인은 어디에 두는지, 그리고 요인은 무엇인지, 기사 유형에 따른 책임 귀인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중심으로 구분했다.

먼저 뉴스 텍스트 구성요건은 팬과 코시키(Pan & Kosichi, 1993)의 이론을 적용해 대본 구조, 주제적 구조, 그리고 수사학적 구조 등 3가지로 나눴다. 그들이 제안한 통사론적 구조 기사는 『징비록』 원저상 해당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징비록』 텍스트는 오늘날의 역피라미드식 뉴스 기사형식인 제목(헤드라인), 리드, 본문, 그리고 결론의 형식의 틀로 분석하기가 어려웠다.

대본(일화적) 구조는 『징비록』 텍스트가 예시, 일화, 사례 등을 담아 기술했는지를 기준으로 정의했다. 가령 현대 저널리즘에서는 사건 발생에 대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등에 대한 현장의 사실을 묘사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임진년 4월 13일에 왜병이 부산포를 침범하여 이를 함락시켰으며, 부산포 침사 정발이 전사하였다”, “잠시 후에 전군의 대부분이 몰려와서 조총 10여개를 가지고 쏘아 되니 총에 맞은 사람은 즉시 쓰러져 죽었다”, “때마침 큰 비가 와서 옷이 젖고, 양식이 떨어지니 밤중에 모두 흩어져 달아났으며...”와 예시문은 모두 대본(일화적) 구조 기사로 간주했다.

주제적 구조는 대본(일화적) 텍스트 구조와는 달리 정책, 전략, 담론, 주장, 의견, 평가, 논쟁 등이 담겨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예를 들어 “양향(식량), 군병, 성지(城池), 기계의 이 네 가지는 적병과 싸우고 국토를 지키는 중요한 관건이다. 이 네 가지 중에서도 반드시 식량으로써 근본을 삼아야 할 것이니...” “근세에는 또 화포라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의 예리한 것은 궁시보다도 도리어 우수하여...”와 같은 텍스트 문장 등이 주제적 구조 기사에 속한다.

수사학적 구조는 정보 메시지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인용법, 영탄법, 직유법, 은유법, 대유법, 풍유법 등의 수사학을 적용해 작성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깃발과 칼, 창이 천리길에 끊어지지 않았으며, 총 소리가 하늘을 진동시켰다”, “임금께서 도성을 떠나 피란하시니 우리와 같은 소민(小民·백성)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내가 경(卿)들에게 국정을 맡겼는데도 오히려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구나”와 같은 텍스트는 수사학적 구조 텍스트로 보았다.

시·공간 프레임에 대한 범주는 차이와 맥콕스(Chyi & McCombs, 2004)의 시·공간적 프레임 이론을 적용해 두 가지 차원으로 분석했다. 하나는 사건이 발생한 연도와 지리적 장소로 구분했다. 사건 연대와 시기는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이전시기, 임진왜란 시기,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로 모두 3개시기로 구분했다. 장소는 한양, 부산동래, 상주, 경상도, 충주, 전라도, 개성, 평양 등 조선 내 지역과 중국, 일본 등 국외 지역으로 각각 구분했다.

임진왜란 실패와 극복에 대한 범주는 책임주체와 요인으로 구분했다. 전란 원인과 극복에 대한 차원별 책임주체를 제시했다. 임진왜란 실패 원인책임의 경우 차원(dimension)은 선행 연구를 참고하고, 임진왜란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 개인, 조직, 국제, 그리고 초자연 4개로 변형해 구성했다. 개인차원의 지표(indicator)는 왕, 관리(지방관리 포함), 장수, 병사, 의병, 백성 6개로 구분했다. 이들 주체별 지표의 하위 요인(item)은 왕의 경우 정세판단미숙, 신하 소통부족, 적재적소 인사실패등 16개, 관리(지방관리 포함)의 경우 도망이탈, 민심소통 부족, 배려 포용 부족 등 21개, 장수의 경우 용기술선 부족, 무례횡포, 전술전략 실패등 18개, 병사의 경우 저항반역 등 5개, 의병의 경우도 도망이탈 등 5개, 백성의 경우는 저항반역등 6개로 구성했다.

조직차원의 지표는 조정, 지방관청, 군대, 병사집단, 의병집단, 백성집단의 6개로 구분해 분석했다. 이들 주체별 지표의 하위 요인은 조정의 경우 사전대비 부족, 행정작동 불능, 집단사

고 등 9개, 지방관청의 경우 사전대비 미비 등 2개, 군대의 경우 병력 부족, 훈련부족 등 4개, 병사집단의 경우 사기용맹부족, 침묵회파등 5개, 의병집단의 경우 규율준수 위반 등 5개, 그리고 백성집단의 경우 도망이탈, 저항반역 등 5개로 구성했다. 국제차원의 지표는 외교, 적군, 우방군 등 3개다. 이들 주체별 지표의 하위 요인은 외교의 경우 주권외교와 강화외교, 통상외교 등 12개, 적군의 경우 전술전략 우수, 심리첩보 우수, 잔혹함 등 6개, 우방군의 경우 무고문책, 동맹군 경시, 전술전략 부재 등 9개로 구성했다. 이들 주체별 하위 요인들은 『징비록』 텍스트를 대상으로 연구자들이 사전 검토를 거쳐 추출해 구성했다.

주술적 신봉과 초자연적 현상을 중시했던 조선시대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해 초자연 지표를 전쟁 재난 프레임 지표에 포함했다. 조선시대에는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적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원인을 초월적인 자연현상에서 찾았다. 음양의 원리를 중시했던 조선은 인간사와 무관한 지진, 일식, 월식, 한발, 홍수, 적조, 병충해 등 자연재해나 범상치 않은 자연현상인 재이(災異)를 인간행위와 관련지어 이해했다(김영주·이범수, 2017).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서양사회에서도 점술이나 초자연적 대상에서 전쟁의 승패나 참전여부를 묻는 문화가 일반화 돼 있었다. 유성과 달의 움직임, 그리고 색상변화에 나타난 특이점 등은 기이한 자연 현상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 속에 신의 의지, 즉 신이 정한 인간사회의 운명이 담겨 있다고 믿었다. 왕이나 군사 지도자들은 점술사나 점성술사를 전장에 동원해 전투에 대한 점괘를 요구했고, 점술사들이 달이나 별의 운행, 새의 날갯짓, 양의 내장 상태 등을 살피며 다가올 전쟁이나 전투에서의 승리나 패배를 예언했다. 조선시대 신문 기능을 했던 ‘조보(朝報)’에서도 해성의 출현, 역병 창궐과 같은 자연적 돌발사건인 재난이나 이변을 군주의 정책 실패나 허물의 문제로 다루었다. 조선시대의 이런 자연 의존적 특성을 반영해 초자연 현상을 전쟁 책임 요인에 포함했다.

전투의 직접적인 승리가 아니어도 조상영웅이나 천지신명에게 문제해결을 비는 제(祭)를 올리는 경우 극복의 해결책임 항목으로 코딩했다. 가령 “기름이 계속 오래되어 강물이 알아졌기에 재신을 여러 곳으로 보내 비오기를 빌었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대신들에게 명하여 단군과 동명왕, 기자의 사당에 가서 비오기를 빌도록 했는데 나는 기자의 사당에 가서 비오기를 빌었다.” 같은 경우다. 또 길조는 임란기사 23번 기사에서 “5월 13일 관왕묘에 큰 제사를 지냈는데, 이날은 관왕의 생일이므로 만약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부는 이변이 있으면 신령이 이르게 된 표시”라고 하였다. “이날은 날씨가 맑고 깨끗했는데, 오후에 검은 구름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큰 바람이 서북쪽에서 불어오더니 천둥과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다가 그치게 되자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면서 ‘관왕의 신령이 내리신 것이다’와 같은 경우가 그 예이다. 유교사회이던 조선에서 전쟁의 원인책임과 극복책임을 초자연 차원의 프레임에도 귀인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징비록』에 나

타난 임진왜란의 실패와 성공에 대한 귀인을 주술적 의미를 부여해 초자연적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초자연 차원은 지표 없이 재해, 역병, 흉조 3개 항목으로 분류했다. 가령, 징비록 1권 15번 기사 첫 구절을 보면 “화마나 병란을 의미하는 ‘횡혹’이 남쪽 두성의 성좌를 침범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불길한 징조의 프레임으로 간주했다. 실제 본 분석에서는 하위요인을 기준으로 복수 코딩을 허용했다.

3) 코딩절차와 신뢰도 측정

연구자 4명이 일차적으로 분석 데이터인 『징비록』 120개 텍스트 전체를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대략 4개월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읽었다. 그런 뒤 연구자들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범주와 하위 차원의 지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와 코딩방법과 절차에 대해 토론했다. 개별 기사당 해당 범주와 유목에 대해 코더 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통해 수정을 거쳐 합의된 기준을 정했다. 이 과정에 코더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이 실시됐다. 연구자들은 그동안 역사학계에서 진행되었던 전쟁의 원인이나 극복이라는 기술적(descriptive) 접근법 대신에 커뮤니케이션과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임진왜란 원인과 극복과정을 계량적으로 조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연구자 4명이 독회(讀會) 형식으로 진행한 실제 코딩 연습과정에서 분석 단위인 기사, 구절, 그리고 문장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연구자들은 임진왜란 원인과 극복 과정에 나타난 프레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사를 구절이나 문장 단위로 나누는 것보다는 하나의 기사 자체를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분석단위(analysis unit)를 120개 기사 텍스트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이 방법은 텍스트 속에 담겨 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에 보다 용이하다.

연구자들은 『징비록』 텍스트가 현대 저널리즘의 뉴스 기사와 같은 패턴으로 기록된 것이 아닌데다, 책임소재를 밝히기 모호한 경우도 있어 코더에 따라 임의로 코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책임소재를 가리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 있거나, 책임에 대한 귀인이 분명한 경우에만 코딩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분석범주의 항목이 많아 자칫 코딩이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수준으로 코딩을 통제했다. 즉, 분석 구분을 차원, 지표, 항목으로 체계화한 뒤 기사 1개당 여러 항목이 중복 코딩될 경우, 중간 단계인 지표를 중심으로 통합했다. 예를 들어 전쟁 실패 원인 귀인을 코딩할 때 가장 높은 단위인 차원은 개인, 조직, 국제, 초자연 4개로 구분하고, 이중 개인차원은 다시 왕, 관료, 장수, 병사, 의병, 백성의 6개 지표로 나누었다. 이 가운데 왕이라는 지표에 해당되는 16개의 세부 요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실제 코딩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들 16개 세부 요인 가

운데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일이었다. 예를 들어 분석 대상인 1개의 기사에서 왕의 실패 원인 귀인을 찾아 코딩할 때 16개 세부 요인 가운데 왕의 국제정세 무지, 왕의 안보불감증, 왕의 무책임 3개 코딩됐다고 하더라도 실패원인 귀인은 3개가 아니라 세부요인 상위 단위인 왕이라는 지표 1개로 통합해 계산했다. 따라서 기사 1개당 왕의 실패 세부 요인이 여러 개 코딩되더라도 실제 카운트는 지표 단위로 통합됨으로 1개가 된다. 물론 같은 기사에서 개인 차원의 다른 지표, 즉 관료나 장수, 병사, 의병, 백성 등의 세부 요인이 코딩되면 그것은 해당 지표에다 코딩했다.

최종 코딩 작업에는 언론학 박사과 석사과정 학생 2명이 참여했다. 통상 전체 분석 자료의 10-20%를 시험코딩에 활용하지만, 전체 분석자료 분량이 120개라는 점을 고려해 30%인 36개 기사를 코딩했다. 코더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는 홀스티(Holsti) 공식을 사용해 측정했다. 홀스티 신뢰도 계수는 2명의 개별 코더가 수행한 각 변인에 대한 코딩결과가 서로 얼마나 일치하는지, 즉 얼마나 동일한 값으로 코딩했는지를 계산해 산출한다(윤영민, 2019). 코딩 범주와 이에 대한 코더간 신뢰도 계수값을 <Table 1>에 제시했다.

Table 1. Coding Item and Inter-coder Reliability

Causing War	Overcoming War
Individual Level king or officials ($\alpha = .999$) general or soldier ($\alpha = .996$) civilian soldier or people ($\alpha = 1$)	Individual Level king or officials ($\alpha = .997$) general or soldier ($\alpha = 1$) civilian soldier or people ($\alpha = 1$)
Organizational Level central or local government ($\alpha = .989$) army ($\alpha = .994$) civilian army or group of people ($\alpha = .996$)	Organizational Level central or local government ($\alpha = 1$) army ($\alpha = 1$) civilian army or group of people ($\alpha = 1$)
International Level diplomacy ($\alpha = 1$) friendly forces ($\alpha = .997$) enemy ($\alpha = .990$)	International Level diplomacy ($\alpha = .994$) friendly forces ($\alpha = .992$) enemy ($\alpha = 1$)
Supernatural Level natural disasters or plagues ($\alpha = 1$) bad omens ($\alpha = .967$)	Supernatural Level worship for ancestor or God ($\alpha = 1$) lucky omens ($\alpha = 1$)
script structure ($\alpha = 1$)	thematic structure ($\alpha = .867$)
	rhetoric structure ($\alpha = .867$)

5.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에 대한 연구결과

'연구문제 1-1'에서 보고자 한 『징비록』 텍스트의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Table 2>에 제시했다. 텍스트 120개 가운데 92.5%(111개)가 현장의 사건 즉, 5w1h 형식으로 에피소드를 기록해 대부분이 현대 저널리즘 관점에서 뉴스 텍스트로서의 대본(script) 기사 구조를 갖췄다. 전시체제에 대한 전술전략이나 무기체계에 대한 심층적 내용을 다룬 주제적 구조의 유형은 30%(3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제적 구조는 단순히 현장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거나 이슈가 되는 사안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를 후세 교훈으로 남겨 현대 저널리즘의 뉴스 텍스트 가운데 심층 해설기사의 성격을 띠었다. 직유법이나 은유법, 과장법, 설의법, 인용법, 영탄법 같은 다양한 비유법을 활용하는 수사학적 구조의 유형은 53%(6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ype of 『Jingbirok』 Text

Type	Cases (%)
script structure	111 (92.5)
thematic structure	36 (30.0)
rhetoric structure	64 (53.0)
total	211 (175)

'연구문제 1-2'에서 보고자 한 『징비록』에서 기록한 시간 프레임으로써 사건 발생 연도를 <Table 3>에 제시했다. 임진왜란 발발 시점인 1592년 이전에 등장하는 과거 시점의 텍스트는 모두 9.1%(11건)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당해 연도(1592년)인 현재 시점이 37.7%(45건)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일본군이 한양에서 후퇴해 남해안으로 내려가면서 명나라 군과 조선정부가 한양을 탈환한 1593년이 12.5%(15건)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이후 연도 언급이 간간히 등장하다가 정유재란이 일어나는 1597년에 8.3%(10건)로 다시 늘어났다. 전쟁이 끝난 1598년 이후에는 전쟁관련 내용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8.3%(10건)이고, 연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16.6%(20건)다. 이 둘을 합하면 25%(30건)다.

Table 3. Year of the Incident Recorded in 『Jingbirok』

Division		Cases of Incidents (%)
time	year	
pre-war	before 1591	7 (5.8)
	1591	4 (3.3)
war	1592	45 (37.7)
	1593	15 (12.5)
	1594	2 (1.7)
	1595	1 (0.8)
	1596	2 (1.7)
	1597	10 (8.3)
	1598	3 (2.5)
post-war	after 1598	1 (0.8)
unknown		10 (8.3)
no mention		20 (16.6)
Total		120 (100)

‘연구문제 1-2’에서 보고자 한 『장비록』에서 기록한 공간 프레임으로써 사건 발생 장소를 <Table 4>에 제시했다. 가장 많이 기록된 장소는 ‘한양’(33건, 27.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이 가장 자주 등장한 배경에는 조정이 수도 한양에 있었고, 왕을 비롯해 조정 관료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전란 실패를 딛고 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많이 기록된 장소는 ‘평안도(의주)’(13건, 10.8%)와 ‘평양(12건, 10.0%)’이었다. 선조가 의주로 몽진을 간 것이 그 이유로 보인다. 또한 평양성을 일본군에 빼앗기고, 명나라 군대가 의주를 거쳐 평안도 일대에 주둔하면서 사건이 이곳 평안도에 집중된 결과로 보인다.

그 다음 ‘전국(12건, 10.0%)’, 그리고 ‘경상도(11건, 9.2%)’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동래, 상주를 포함한 경상도도 비교적 많이 등장한 배경에는 이 일대가 일본군의 주요 침략 경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언급이 없는 경우는 10건(8.3%)이었다.

Table 4. Location of the Incident Recorded in 『Jingbirok』

Place	Cases (%)
Hanyang	33 (27.5)
Pyeongang-do (Uiju)	13 (10.8)
Pyongyang	12 (10.0)
nationwide	12 (10.0)
Gyeongsang-do	11 (9.2)
Gyeonggi-do	9 (7.5)
Jeolla-do	7 (5.9)
Imjin-river	3 (2.5)
Chungju	2 (1.7)
China	2 (1.7)
Japan	2 (1.7)
Hamgyeong-do	1 (0.8)
Busan Dongnae	1 (0.8)
Sangju	1 (0.8)
Gaesung	1 (0.8)
unknown	1 (0.8)
no mention	9 (7.5)
Total	120 (100)

2)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 결과

‘연구문제 2-1’에서 보고자 한 『징비록』에 나타난 전쟁원인과 극복에 대한 차원별 책임 프레임 분석 결과를 <Table 5>에 제시했다. 하나의 기사에서 실패나 극복에 대한 책임귀인 내 하위요인을 복수로 코딩해 실제 코딩 건수는 120건을 넘어 실패책임은 270건, 극복책임은 221건이다. 임진왜란 실패의 원인책임 귀인은 국제 차원(33.0%)이 가장 많은 가운데 개인 차원(31.1%)과 조직 차원(30.0%)도 비슷한 수준으로 많았다. 특히하게도 초자연 차원(5.9%)도 일부 나타났다.

개인 차원에서 실패원인 귀인은 장수(53.6%), 중앙관리(20.2%), 그리고 지방관리(11.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쟁을 직접 지휘한 장수들의 무능과 함께 전쟁 지원 역할을 맡는 관료들이 제구실을 못했음을 보여준다. 왕에 대한 귀인(10.7%, 9건)은 지방 관리의 뒤를 이었는데, 왕정제 중심의 조선에서 왕보다 장수와 관리들에게 전쟁 실패의 책임을 묻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조직 차원에서는 왕과 관리들로 구성된 조정책임이 40.8%(33건)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지방관청의 책임은 1.2%(1건)에 그쳤다. 지휘관과 병사로 구성되는 군대라는 조직차원도 18.5%(15건)로 적지 않게 책임이 귀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대목은 백성 집단

(26.0%, 21건)이다. 백성 집단은 전적으로 무능한 조정과 일본의 침략에 의한 희생자였지만, 전쟁 실패원인 책임주체자의 하나로 귀인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국제 차원에 있어 실패원인 귀인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군(52.8%)이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우군이었던 명나라 군대(明軍)(31.5%)도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임진왜란 과정에 조선이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적군인 일본군이 강한 군사력을 갖춘 반면에, 우방국으로 참전한 명나라 군대는 상대적으로 무능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조선이 임진왜란 초기 전사상태에서 벗어나 전란을 수습하고 패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책임귀인은 개인차원 45.7%(101건), 조직차원 28.5%(63건), 국제차원 22.6%(50건), 그리고 초자연 차원 3.2%(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투 패배와 후퇴를 반복했던 전쟁 초기 실패 책임이 국제, 개인, 조직 차원의 프레임 순서인 점과 대비된다.

개인차원에서 전쟁 극복책임은 중앙관리(40.6%)가 가장 많이 귀인된 가운데, 장수(32.6%)와 왕(15.8%)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쟁 극복을 중앙조정 관리와 장수들이 주도한 가운데, 왕은 전쟁 원인과 마찬가지로 뒤로 밀려나 있었다. 또한 개인차원의 전쟁 원인 책임에서 11.9%(10건)를 차지했던 지방관리가 극복과정에서는 그 책임이 3%(3건)에 그쳤다. 전쟁 극복을 위한 행정권한이나 예산 집행 등을 중앙정부가 독점했음을 보여준다. 조직차원에서 전쟁극복 책임 귀인은 조정이 46%(29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왕과 중앙관리들로 구성된 조정이 국가 전쟁 극복책임을 맡는 것은 타당하다. 이런 가운데 전쟁 극복과정에 의병(12.7%, 8건)이 주요한 책임주체로 부상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국제차원의 극복 해결책임 주체는 우방군인 명나라 군대(62%, 31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Table 5. *Imjin War Responsibility Attribution Appeared in 『Jingbirok』*

[unit: cases, (%)]

Level	Category	Causing War	Overcoming War
Individual	king	9 (10.7)	16 (15.8)
	central official	17 (20.2)	41 (40.6)
	local official	10 (11.9)	3 (3.0)
	general	45 (53.6)	33 (32.6)
	soldier	1 (1.2)	2 (2.0)
	civilian soldier	1 (1.2)	2 (2.0)
	people	1 (1.2)	4 (4.0)
	sub-total	84 (31.1)	101 (45.7)

Organizational	central government	33 (40.8)	29 (46.0)
	local government	1 (1.2)	5 (7.9)
	army	15 (18.5)	11 (17.4)
	group of soldier	10 (12.3)	5 (7.9)
	civilian army	1 (1.2)	8 (12.7)
	group of people	21 (26.0)	5 (7.9)
	sub-total	81 (30.0)	63 (28.5)
International	diplomacy between Joseon and Ming kingdoms	1 (1.1)	5 (10.0)
	diplomacy between Joseon and Japan	8 (9.0)	5 (10.0)
	diplomacy between Ming kingdoms and Japan	5 (5.6)	6 (12.0)
	friendly forces	28 (31.5)	31 (62.0)
	enemy	47 (52.8)	3 (6.0)
	sub-total	89 (33.0)	50 (22.6)
Supernatural	natural disaster/worship for ancestor	3 (18.8)	2 (28.6)
	plague/ worship for god	5 (31.2)	1 (14.3)
	bad omens/ lucky omens	7 (43.7)	4 (57.1)
	the others	1 (6.3)	0 (0.0)
	sub-total	16 (5.9)	7 (3.2)
total		270 (100)	221 (100)

‘연구문제 2-2’에서 보고자 한 『징비록』에 나타난 개인 차원의 전쟁 실패와 극복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Table 6>에 제시했다. 먼저 개인 차원의 전쟁 실패 요인을 살펴본 결과, 왕의 경우 전체 9건(10.8%)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적재적소의 인사실패, 용기와 결단력 부족 등이 주요 책임 요인이었다. 당시 왕이었던 선조는 삼도수군통제사였던 이순신을 파직하고 원균을 임명해 조선 수군에 큰 타격을 입히는 원인을 제공하는 등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시사적으로 보여준다.

중앙관리의 경우 전쟁정책 가운데 정세판단을 잘못 한 경우가 66.7%(4건)로 가장 많았다. 임진왜란 발발하기 직전 일본에 다녀온 통신사 일행이 국제정세를 바로 읽지 못하고 그릇된 정보를 조정에 보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관리들이 위기관리 과정에 지켜야 할 복무태도인 신의정성을 다하지 못한 요인이 27.3%(3건)로 상당했으며, 심지어 관리들이 도망을 갔다는 내용도 18.2%나 되었다.

지방 관리의 구체적인 실패 책임귀인 요인은 도망반역이 80%(8건), 침묵회피가 20%(2건)나

됐다. 왕과 움직이며 함께 일해야 하는 중앙관리와 달리 각 지방에서 떨어져 근무하는 지방 관리들이 조정의 통제력이 약해진 틈을 타 무시로 이탈하거나 복지부동한 사실을 보여준다.

장수의 전쟁 실패 첫 번째 요인은 장수의 위기관리 가운데 도망이탈이 31.3%(10건)로 가장 많았다. 적군에 맞서 싸워야 할 장수들이 강한 적군의 기세에 눌려 군대를 버리고 도망간 것은 그들의 무책임성과 나약한 리더십을 보여준다. 장수의 전략 실패 원인 책임 가운데는 전술전략을 잘못 구사한 요인이 58.3%(7건)로 많았다. 함경도 지역에서 여진족과 간헐적인 전투를 벌인 것 외에 오랫동안 대규모 전투를 치러본 경험이 없던 조선 장수들의 입장에서 왜군에 맞설만한 전술전략을 구사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순변사 이일이 상주의 북천변에서 일본군의 기습작전에 어이없이 당하거나, 도순변사 신립이 천혜의 요충지 조령을 버리고 개활지인 충주 달천강 유역에서 배수진을 치고 싸우다 참패한 점은 조선 장수들의 전술전략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잘 보여준다. 장수의 실패 책임 가운데 세 번째 요인은 위기관리 가운데 부하들에 대한 무례횡포로 18.8%(6건)이다. 걸핏하면 부하를 매질하거나 심지어 참살해 부하병사들의 사기를 떨어트렸다.

이어서 전쟁 극복 요인을 개인차원에서 살펴본 결과, 조선왕조의 최고 책임자인 왕의 역할이 전쟁 실패 책임 때와는 달리 긍정적으로 강조된다. 전쟁 극복을 위한 왕의 역할에 관련 있는 16건 가운데 전쟁 정책에서 9건, 위기관리에서 7건이 극복요인으로 귀인됐다. 전쟁 정책 9건 안에서는 전후수습을 잘한 것이 55.6%(6건), 사전대비가 33.3%(3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기관리 7건에서는 백성과 소통 노력이 반영된 민심소통이 42.9%(3건), 신하에 대한 배려포용이 28.6%(2건) 순이었다. 중앙관리의 경우 전쟁정책에서 전술전략을 잘 구사한 점이 75%(12건)로 가장 많았다. 관리가 보여준 극복책임 요인은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불철주야 전란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의정성이 36%(9건)로 두드러졌다. 류성룡의 경우 치질 같은 개인의 질병 등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돌보지 않고, 전란극복에 최선을 다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개인차원에서 구체적 극복요인으로 장수의 전쟁정책에 해당되는 전술전략이 70.6%(12건)로 가장 많았다. 이순신을 중심으로 연합함대를 결성한 수군과 권율 등의 육군이 각각 해상과 지상전투에서 펼친 승전은 일본군의 특성을 이해하고 조선군의 장점을 극대화한 전술전략의 결과물이었다. 장수의 위기관리 중에는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전투에 임하는 용기술선에 대한 내용도 43.8%(7건)로 많이 언급되었다.

Table 6. Factors of Causing or Overcoming War at Individual Level

Category	Causing War			Overcoming War				
	Item	Sub-item	Cases (%)	Item	Sub-item	Cases (%)		
King	war policy	judgment of the situation	1 (50)	war policy	preparation	3 (33.3)		
		strategy or tactic	1 (50)		handling after war	5 (55.6)		
	personnel management policy	the right personnel affairs	2 (100)		understanding the situation	1 (14.3)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with officials	1 (20)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with people	3 (42.9)		
		courageous lead	2 (40)		communication with employee	1 (14.3)		
		silence or abdication	1 (20)		tolerance	2 (28.6)		
		the others	1 (20)		punishment	1 (14.3)		
	sub-total			9 (10.8)	sub-total			16 (15.8)
	Central Official	war policy	preparation	1 (16.67)	war policy	preparation	1 (6.2)	
			judgment of the situation	4 (66.67)		handling after war	3 (18.8)	
strategy or tactic			1 (16.67)	strategy or tactic		12 (75)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with people	1 (9.09)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with people	3 (12)		
		conflict mediation	1 (9.09)		communication with employee	2 (8)		
		tolerance	1 (9.09)		conflict mediation	2 (8)		
		fulfilling	3 (27.27)		tolerance	2 (8)		
		run away	2 (18.18)		encouragement	1 (4)		
		reporting the fact	3 (27.27)		punishment	1 (4)		
					fulfilling	9 (36)		
					courageous lead	1 (4)		
sub-total			17 (20.2)	sub-total			41 (40.5)	
Local Official		crisis management	silence or abdication	2 (20)	crisis management	handling after war	1 (33.3)	
			rebellious run away	8 (80)		fulfilling	2 (66.7)	

		sub-total	10 (11.9)		sub-total	3 (2.9)
General	war policy	judgment of the situation	5 (41.7)	war policy	preparation	2 (11.8)
		strategy or tactic	7 (58.3)		handling after war	1 (5.9)
	personnel management	the right personnel affairs	1 (100)	crisis management	understanding the situation	2 (11.8)
		communication with soldiers	3 (9.38)		strategy or tactic	12 (70.6)
	crisis management	tolerance	3 (9.38)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with soldier	1 (6.2)
		punishment	1 (3.13)		tolerance	2 (12.5)
		courageous lead	3 (9.38)		punishment	1 (6.2)
		silence or abdication	2 (6.25)			fulfilling
		run away	10 (31.25)		courageous lead	7 (43.8)
		tyranny	6 (18.75)		reporting the fact	2 (12.5)
		reporting the fact	3 (9.38)			
		기타	1 (3.13)			
	sub-total	45 (53.5)	sub-total	33 (32.9)		
	Soldier	resistance or rebellion	1 (100)		fighting spirit	1 (50)
					compliance with regulations	1 (50)
	sub-total	1 (1.2)		sub-total	2 (2)	
Civilian Soldier	runaway	1 (100)		voluntary participation	1 (50)	
				fighting spirit	1 (50)	
	sub-total	1 (1.2)		sub-total	2 (2)	
People	resistance or rebellion	1 (100)		voluntary participation	3 (75)	
				compliance with regulations	1 (25)	
	sub-total	1 (1.2)		sub-total	4 (3.9)	
	Total	84 (100)		Total	101 (100)	

‘연구문제 2-2’에서 보고자 한 『징비록』에 나타난 조직 차원의 전쟁 실패와 극복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Table 7>에 제시했다. 우선 조직 차원의 전쟁 실패 요인을 살펴본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조정의 행정작동 불능(24.2%, 8건)으로 나타났다. 관리들이 정세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의정성을 다하지도 않는 가운데, 조직을 벗어나 도망이탈하는 등의 책임회피가 늘어나면서 조정의 전시행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한 마디로 기강해이가 중요한 실패요인이었다. 조정 내부에서 불화갈등을 조정하고, 신상필벌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요인도 각각 18.2%(6건)씩 나타났다.

백성집단에 전쟁 실패를 귀인한 요인 21건 가운데, 도망이탈 33.3%(7건)과 저항반역이 28.6%(6건)나 된 점은 흥미롭다. 일본군이 조선 땅을 침탈하는 과정에 백성들은 도망을 가거나 선조가 도성인 한양을 버리고 도피하자 이에 분노해 경복궁을 비롯한 서울 시내 도성을 불태운 역사적 사실이 대표적이다. 또 신의주로 도피한 선조와 달리 분조 정책에 따라 함경도로 간 왕자 임해군 등을 붙잡아 일본군에 바친 사실은 조선왕조에 대한 민심이반이 어느 정도였는지 잘 보여 준다. 일반 백성 가운데 일본군의 첩자노릇을 하는 등 적극적인 부역활동을 펼친 백성도 적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조선왕조가 임진왜란 당시 민심을 잃었으며, 사회적 통합에 실패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이어서 조직 차원의 전쟁 극복 요인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가장 많이 나타난 요인이 적극적인 전후 수습 27.6%(8건), 적절한 인사 17.2%(5건), 민심소통 13.8%(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기 패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왕이 도망을 가면서 조정이 붕괴상태에 이르렀지만, 차츰 전열을 가다듬어 류성룡을 중심으로 조정이 제 기능을 찾았음을 보여준다. 군대내 구체적인 극복요인은 11건 가운데 무기 확보와 성벽 보강 같은 무기군수 요인이 45.5%(5건)를 차지했다. 신무기 요인도 36.4%(4건)였다.

Table 7. Factors of Causing or Overcoming War at Organizational Level

Category	Causing War		Overcoming War	
	Item	Cases (%)	Item	Cases (%)
Central Government	preparation	3 (9.1)	preparation	5 (17.2)
	handling after war	2 (6.1)	handling after war	8 (27.6)
	the right personnel affairs	2 (6.1)	the right personnel affairs	5 (17.2)
	administrative operations	8 (24.2)	administrative operations	3 (10.3)
	discord or conflict	6 (18.2)	harmonic communication	1 (3.4)
	factional politics	1 (3.0)	communication with people	4 (13.8)
	punishment	6 (18.2)	factional politics	1 (3.4)
	group think	5 (15.2)	punishment	2 (6.9)
	sub-total	33 (40.8)	sub-total	29 (46.1)
Local Government	preparation	1 (100)	preparation	2 (40)
			handling after war	3 (60)
	sub-total	1 (1.2)	sub-total	5 (7.9)

Army	combat troops	5 (33.3)	thorough training	2 (18.2)
	lack of training	5 (33.3)		
	arms or facility for munitions	1 (6.7)	arms or facility for munitions	5 (45.5)
	a command system	4 (26.7)	development of new weapons	4 (36.4)
	sub-total	15 (18.5)	sub-total	11 (17.5)
Group of Soldiers	fighting spirit	2 (20.0)	fighting spirit	3 (60)
	silence or abdication	1 (10.0)		
	run away	7 (70.0)	compliance with regulations	2 (40)
	sub-total	10 (12.4)	sub-total	5 (7.9)
Civilian Army	compliance with regulations	1 (100)	voluntary participation	7 (87.5)
			courageous spirit	1 (12.5)
	sub-total	1 (1.2)	sub-total	8 (12.7)
Group of People	fighting spirit	3 (14.3)	active cooperation	4 (80)
	hostile public sentiment	2 (9.5)		
	silence or abdication	1 (4.8)		
	run away	7 (33.3)	the others	1 (20)
	resistance or rebellion	6 (28.6)		
	plunder	2 (9.5)		
	sub-total	21 (25.9)	sub-total	5 (7.9)
	Total	81 (100)	Total	63(100)

‘연구문제 2-2’에서 보고자 한 『징비록』에 나타난 국제 차원의 전쟁 실패와 극복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Table 8>에 제시했다. 먼저 국제 차원의 전쟁 실패 요인을 살펴본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적군의 전술전략(27.7%,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과 명나라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조총을 앞세우고, 조선의 지리를 철저히 연구해 조선 팔도를 9개 군으로 나눠 효율적으로 공략한 전술전략이 돋보였다는 내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선에 대한 적군의 심리 첩보전이 성공을 거둔 내용도 21.3%(10건)나 됐다. 조선 내부 정세를 오랫동안 정탐하고 첩자를 보내 교란시키거나 대군으로 곧 공격할 것 같은 소문을 내 조선병사와 백성들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첩보심리전에서 우위를 보인 예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일본군의 전투병력(14.9%)과 일본군의 잔혹함(14.9%)도 조선군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킴으로써 전쟁 실패를 가져온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국제 차원의 전쟁 극복 요인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명나라의 전투병력, 동맹국인 명

과 조선의 협조가 각각 25.8%(8건)을 나타냈다. 전시상황에서 명나라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5만여 명의 군사를 보내 동맹국으로써 조선을 구한 명나라의 도움이 컸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수군제독 진린과의 협조와 같은 양국 군사 간 밀접한 공조가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기여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명나라가 일본과 외교를 통해 전쟁을 종식시키려한 명·일 강화외교(83.3%) 요인도 조선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되찾는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Table 8. Factors of Causing or Overcoming War at International Level

Category		Causing War		Overcoming War	
		Item	Cases (%)	Item	Cases (%)
Diplomacy	between Joseon and Ming kingdoms	sovereign diplomacy	1 (100)	sovereign diplomacy	3 (60)
				peace diplomacy	1 (20)
				trade diplomacy	1 (20)
	between Joseon and Japan	sovereign diplomacy	5 (62.5)	sovereign diplomacy	3 (60)
		peace diplomacy	3 (37.5)	peace diplomacy	2 (40)
	between Ming kingdoms and Japan	peace diplomacy	2 (40)	sovereign diplomacy	1 (16.7)
		trade diplomacy	3 (60)	peace diplomacy	5 (83.3)
		sub-total	14 (15.7)	sub-total	16 (32)
Enemy	combat troops	7 (14.9)	arms or facility for munitions	1 (33.3)	
	strategy or tactic	13 (27.7)			
	intelligence	10 (21.3)			
	arms or facility for munitions	6 (12.8)			
	fighting spirit	3 (6.4)	punishment	2 (66.7)	
	cruel act	7 (14.9)			
	the others	1 (2.1)			
		sub-total	47 (52.8)	sub-total	3 (6)
Friendly Forces	strategy or tactic	9 (32.1)	combat troops	8 (25.8)	
	arms or facility for munitions	1 (3.6)	strategy or tactic	3 (9.7)	
	false accusation	2 (7.1)	arms or facility for munitions	3 (9.7)	
	fighting spirit	7 (25)	fighting spirit	5 (16.1)	
	run away	2 (7.1)	cooperation with allies	8 (25.8)	

	negligence of allies	3 (10.7)	cooperation	3 (9.7)
	cooperation	3 (10.7)	the others	1 (3.2)
	the others	1 (3.6)	sub-total	31 (62)
	sub-total	28 (31.5)	Total	50 (100)
	Total	89 (100)		

‘연구문제 2-2’에서 보고자 한 『징비록』에 나타난 초자연 차원의 전쟁 실패와 극복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Table 9>에 제시했다. 먼저 초자연 차원의 전쟁 실패 요인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이 차지한 요인은 흉조(44.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역병(31.3%), 자연재해(19.0%) 순이다. 전쟁 극복 요인에서는 길조(吉兆)(57.1%)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조상숭배(28.6%)와 같은 초자연의 도움에 의탁하는 내용도 보였다.

Table 9. Factors of Causing or Overcoming War at Supernatural Level

Causing War		Overcoming War	
Item	Cases (%)	Item	Cases (%)
natural disaster	3 (19.0)	worship for ancestor	2 (28.6)
plague	5 (32.0)	worship for god	1 (14.3)
bad omens	7 (44.5)	lucky omens	4 (57.1)
the others	1 (4.5)	the others	0 (0.0)
Total	16 (100)	Total	7 (100)

3) ‘연구문제 3’에 대한 분석 결과

‘연구문제 3’에서 보고자 한 『징비록』에서 텍스트 유형에 따른 전쟁 실패와 극복의 책임 귀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Table 10>에 제시했다. 일화중심 텍스트 220건에서 전쟁 실패의 원인책임은 국제차원이 33.6%(74건)로 가장 많았다. 국제차원 74건 가운데 가장 많은 요인은 적군으로 51.3%(38건)였다. 국제 차원에 이어 개인 차원 역시 32.3%(71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개인 차원 내에서는 장수가 59%(42건), 관리14.1%(10건), 왕 8.5%(6건)였다. 왕의 비중이 낮은 것은 류성룡이 비록 조정의 당파 싸움과 무능한 대처를 비난했지만, 왕에 대해서는 충절의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한 점과 무관하지 않다. 무엇보다 왕정제 국가에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문건에서 사후에라도 밝혀지면, 후손들이 심각한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었을 것이다. 조직차원은 29.1%(64건)로 그 가운데 조정이 39.1%(25건)로 가장 많았다.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건대비에 소홀했던 조정의 무능을 보여준다.

일화중심 텍스트에서 극복이라는 해결책임의 경우 전체 176건 가운데 개인차원이 48.9%(86건)로 가장 많았다. 개인차원 내에서는 지방 관리를 포함한 관리가 39.5%(34건), 장수가 38.4%(33건)를 기록했다. 실패를 딛고 관리와 장수들이 극복을 위해 신의 정성을 다하며 노력한 결과로 분석된다. 조직차원은 27.8%(49건)로 개인차원의 48.9%(86건)보다 크게 낮았다. 일화중심 기사의 경우 개인차원으로 더 많이 귀인해 기존 이론을 뒷받침해 준다.

주제중심으로 기록한 텍스트에서는 전쟁 실패의 원인 책임 7건 항목 가운데 조직차원이 71.4%(5건), 개인차원은 28.6%(2건)로 나타나 일화적 텍스트 분석 결과와 대조를 보였다. 문제 극복책임은 8건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개인 차원이 62.5%(5건)로 조직차원 37.5%(3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텍스트 유형에 따른 책임귀인에서 원인과 극복을 합칠 경우 대체적으로 일화중심에서는 개인차원, 주제중심에서는 조직차원에 더 많이 귀인해 선행 연구의 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여준다.

Table 10.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by Text Type

[unit: cases, (%)]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necdotal Text			Thematic Text		
	Causing War	Overcoming War	sub-total	Causing War	Overcoming War	sub-total
Individual	71 (32.3)	86 (48.9)	157 (39.7)	2 (28.6)	5 (62.5)	7 (46.7)
Organizational	64 (29.1)	49 (27.8)	113 (28.5)	5 (71.4)	3 (37.5)	8 (53.3)
International	74 (33.6)	37 (21.0)	111 (28.0)	0 (0.0)	0 (0.0)	0 (0.0)
Supernatural	11 (5.0)	4 (2.3)	15 (3.8)	0 (0.0)	0 (0.0)	0 (0.0)
Total	220 (100)	176 (100)	396 (100)	7 (100)	8 (100)	15 (100)

6. 결론 및 논의

우리는 류성룡이 쓴 『징비록』이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실상을 어떻게 현실 구성했는지, 프레임 이론을 적용해 과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류성룡이 임진왜란 상황을 개인 경험과 문헌을 바탕으로 기록한 『징비록』이 뉴스 텍스트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전시상황이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술적 평가를 했다. 그리고 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징비록』에 나타난 임진왜란 실패 원인과 극복 과정에 나타난 책임주체와 요인은 누구(혹은 무엇)에 있는지 텍스트 프레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텍스트 유형에 따라 전쟁 실패와 극복 과정에 책임을 누구에게 귀인 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징비록』은 6하 원칙에 따른 대본과 주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비유법, 예시, 영탄법으로 표현하는 수사학적 구조를 갖추고 있어 뉴스 텍스트의 조건에 부합했다. 임진왜란 전시상황은 시간적으로 임진왜란이 발발한 당해 연도(1592년)와 전쟁 전개 기간 7년을 중심으로 “현재시점”에 집중해 다뤄졌다. 이에 반해 전쟁 전(과거)과 전쟁 후(미래) 시기에는 전시에 관한 내용을 별로 다루지 않았다. 전쟁이 전개되는 공간(예: 장소)은 주로 왕과 조정신료들이 머물렀던 도성 한양과 왜군의 한양 진격에 따라 왕(선조)이 도피한 의주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그리고 왜군의 주요 침략 경로였던 경상도 지역이 중심 공간으로 다뤄졌다. 이에 반해 공간적으로 단위가 보다 큰 전국지역이나 해외 영토(예: 일본, 명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징비록』은 임진왜란 실패 원인을 국제, 개인, 조직, 초자연 차원의 순으로 책임을 귀인했다. 임진왜란이 실패한 원인의 일차적 책임주체자로 주변 국가인 일본과 명나라를 지목했다. 두 번째 책임주체인 개인차원의 경우는 장수, 중앙 조정관리, 지방 관리들 순으로 그 책임이 귀인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왕이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쟁 실패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조직차원에서의 책임귀인은 중앙정부, 백성집단, 군대와 병사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무능한 조정 때문에 일어난 전쟁의 피해자였던 백성들이 책임 주체자로 귀인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현대사회에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길조, 흉조와 같은 초자연적 현상이 전쟁 실패 원인으로 귀인되고 있는 점도 이채롭다.

전쟁 극복을 위한 책임 귀인에서는 개인, 조직, 국제, 초자연 순으로 나타나 전쟁 원인에 대한 책임 귀인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개인차원의 경우 중앙 조정관리, 장수, 왕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쟁 실패 원인 책임론에서 벗어나 있던 왕이 전란 극복과정에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로 등장했다. 이에 반해 지방 관리는 전쟁 실패 원인에 대한 책임 때와는 달리 전란 극복과정에서는 배제되었다. 조직차원에서는 조정, 군대, 의병이 전란 극복 핵심 주체로 소환되었다. 국가적 책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았던 의병이 극복 책임주체로 포함된 점이 흥미롭다. 국제차원에서는 명나라, 명·일 외교, 조·명 외교, 조·일 외교 등으로 나타나 당시 외교 중재자로서 명나라의 역할론이 상당히 중요했음을 보여준다. 전쟁 극복 책임주체 프레임에서도 길조/흉조, 자연재난/조상숭배, 천지신명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이 강조되었다.

임진왜란 실패와 극복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 전쟁 실패 요인으로는 먼저 개인차원에서 장수의 경우 군대를 버리고 도망치는 무책임성과 나약한 리더십, 그리고 부하들을 함부로 다루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무례황포 프레임이 많았다. 조정 관리의 경우는 국제 정세판단이 올바르지 못했고, 조정 관리로서 신의정성이 부족했으며, 도망이탈과 같은 기강해이와 사전대비 소홀이 전쟁 실패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왕의 전쟁 실패 요인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지 못했거나 용기술선이 부족했다는 요인 정도만 간략히 언급했을 뿐 왕의 책임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조직차원에서 실패 요인은 조정의 전시행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시스템 부재 프레임이 가장 두드러졌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백성들이 도망을 가거나 왕이나 조정에 대해 저항 반역을 하는 경우가 전쟁 실패요인 프레임의 하나로 언급된 점이다. 국제차원에서의 실패 요인으로는 조총을 앞세우고, 조선의 지리를 철저히 연구해 효율적으로 공략한 '왜군의 전술전략', 그리고 왜군의 교묘한 심리 첩보전과 잔혹함이 강조되었다.

전쟁 극복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개인차원의 경우 중앙 조정관리가 펼친 효율적인 전쟁정책과 전란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의정성과 용기술선이 강조됐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전쟁 실패 책임론에서는 벗어나 있던 왕이 전쟁 극복과정에는 전후수습, 민심수습과 같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는 프레임이 강조되고 있는 점이다. 조직차원에서 조정 내부의 전란 극복요인으로는 적극적인 전후 수습, 적절한 인사, 민심소통 프레임이 두드러졌다. 군대내의 구체적인 극복요인은 무기 확보와 성벽 보강 같은 무기군수 대책과 거북선 등 신무기 개발 등이 강조되었다. 국제차원에서 우방군내 극복요인 프레임으로는 명나라의 전투 병력과 조·명 간 외교협조가 두드러져 전쟁 극복과정에 명나라의 중재 역할이 컸음을 보여줬다. 『징비록』에 나타난 일화적 텍스트에서는 전쟁 실패 원인과 전란 극복 책임주체로 개인차원이 강조되었으며, 반면에 주제적 텍스트에서는 전쟁 실패 원인과 전란 극복 과정에 모두 조직차원이 강조되었다. 이런 결과는 기존 연구(Kim et al., 2010)와 부합한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언론학적 함의점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미디어는 사회가 강조하는 가치와 미덕, 약점과 강점을 선별적으로 선택, 강조, 상술해 특정 측면을 현저하게 드러낸다는 프레임이 『징비록』 텍스트 내용에서도 확인되었다. 오늘날 미디어가 특정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특정 프레임을 강조함으로써 해당 이슈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드러내듯이, 『징비록』 역시 임진왜란 전개과정에 관찰되고 목격된 특정 사실에 대한 부각을 통해 전쟁의 원인과 실패, 그리고 극복을 위한 역사적 교훈을 제시했다. 과거 역사적 기록물도 오늘날 언론과 마찬가지로 의제의 선택과 함께 의제의 특정 속성을 선별, 상술함으로써 책임 원인과 주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여론의 지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미디어는 사회적 갈등 문제를 다룰 때 문제의 정의, 원인진단,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 그리고 해법 프레임을 제시하는데, 이런 프레임 구성 체계를 『징비록』 내용분석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류성룡은 『징비록』에서 임진왜란에 대한 원인과 진단, 그리고 평가와 대응책에 대한 프레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류성룡은 임진왜란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욕에 의한 참혹한 침략전쟁으로 성격 규정했으며, 임진왜란 발발 원인에 대해서는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운 일본의 야욕을 강조한 가운데, 조선 내부적으로는 조정의 어두운 국제정세와 장수와 관료들의 무책임과 무사안일, 그리고 군성(軍城) 구축과 같은 전쟁대비 미비를 지적했다. 도덕적 평가에 대해서는 일본의 부당하고 명분 없는 조선침략과 조선에 대한 명나라의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군사 및 외교 지원을 강조했다. 그리고 문제 해법 프레임에 있어서는 외부적으로 명나라의 지속적인 지원과 일본에 대한 명나라의 외교적 중재역할을 기대함으로써 명나라에 대한 양면적 판단과 평가를 보였다. 이에 반해 내부적으로는 왕에 대해 백성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한편, 무기 확보와 성벽 보강 같은 군수체제를 정비하는 이른바 ‘강병론(強兵論)’을 주요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물론 모든 텍스트에서 이런 과정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전쟁 상황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위치 지워져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미디어는 재난의 원인과 책임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프레이밍 한다는 이론적 사실을 『징비록』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 연구(Chyi & McCombs, 2004)에 따르면, 사회적 재난의 원인과 책임의 문제는 하나의 주체 단위로 고정되어 귀인 되지 않는다. 대신 미디어는 상황 전개에 따라 재난의 문제를 정의, 진단, 평가를 달리하며, 동시에 책임의 주체와 내용을 변용해 제시한다. 미디어의 이런 복합적 구성 체계는 재난에 대한 원인 진단과 문제해결 주체, 그리고 해결 방법에 따라 다른 해석들을 제공한다. 미디어가 제시하는 책임주체에 따라 사회적 여론이 다르게 형성되고, 정책 의사결정 역시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총기 사고의 책임이 개인에게 귀인되는지, 아니면 규제가 느슨한 정부의 총기 관리정책에 귀인되는지에 따라 총기 사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물론 규제 정책의 방향도 달라진다. 이런 점에서 미디어는 재난 원인과 극복에 대한 귀책을 개인, 조직, 사회,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 등으로 선택적으로 제안함으로써 문제 원인 제공자와 문제 해결 주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며, 나아가 사회적 여론의 향방과 정책의 실천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류성룡이 “지난 일의 잘못을 징계하여, 뒤에 환난이 없도록 조심 한다”고 밝힌 『징비록』의 기록 목적은 바로 책임 귀인 프레임을 통해 대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넷째, 미디어가 제시하는 재난 문제에 대한 책임 프레임은 『징비록』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시스템에 따라 다르게 구축되고 해석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류성룡이 『징비록』에서 전쟁 실패에 대한 책임 문제를 기록하면서는 왕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은데서 잘 드

러난다. 하지만 전쟁이 종료되고 극복되는 과정에는 왕이 주도적 행위 주체로 등장함으로써,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살리는 역할이 부여된다. 류성룡이 당시 임금이었다던 선조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못한 기록의 배경에는 조선 사회가 임금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절대 왕정제 국가라는 정치 시스템을 무시할 수 없다. 임금이 최종 의사결정자이자, 절대적 존재로 여겼던 당시의 사회문화 속에서 신하가 임금의 전쟁정책 실패 책임을 직접 비판하는 일은 쉽지 않다. 류성룡이 『징비록』에서 “어려운 시기에 나라의 중대한 책임을 맡아서 위태로운 판국을 바로 잡지 못하고....그 죄는 죽어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자책하면서도 정작 왕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찌 임금님의 너그러우신 은전이 아니겠는가”라고 밝힌 점은 왕에 대한 비판적 기록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음을 짐작케 한다. 임금은 나쁜 뉴스에는 숨고, 좋은 뉴스에는 등장하는 이른바 ‘가면의 정치 프레임’ 이 『징비록』을 통해서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왕에 대한 류성룡의 이런 역사 인식은 백성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기록된다. 류성룡은 왕의 도망과 조정의 무능에 분노한 백성의 저항과 이탈을 전란을 악화시키는 책임의 문제로 기록하고 있다. 나아가 자발적 참전으로 구국활동에 나섰던 의병이나 전쟁극복 과정에 보여준 백성의 협조 역시 객관적으로 기록해 ‘백성’을 전란 극복의 주체로 인정한다. 왕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서는 비판을 삼가면서 긍정적인 역할 위주로 기록했다면, 백성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 역할을 모두 기록해 차이를 보였다. 류성룡이 관직에서 물러나 훗날을 경계하고자 『징비록』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기록했다고는 하지만, 왕조 체제 아래 왕을 대놓고 비판하기 어려웠던 당시 사회 분위기가 담겨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전쟁 재난의 원인으로 귀인되는 초자연 현상에 대한 내용 프레임이 역사적 기록물에 자주 등장한 점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류성룡은 『징비록』을 기록하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넘볼 수 없는 기이한 자연현상과 재이(災異)를 재난 원인과 극복의 조짐으로 보고 이를 주요 프레임으로 다루었다. 오늘날 뉴스나 기록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현상이다. 지진, 일식, 월식, 한발, 홍수, 적조, 혜성 출현, 역병 창궐과 같은 자연재해나 초자연 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한 것이지만, 조선사회가 초자연 현상을 실제 전란(戰亂)을 예측하는 중요한 정치적 계시이자, 메시지로 해석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언론은 길조, 흉조와 같은 초자연적 현상을 재난의 징조로 다루지 않지만, 조선사회에서는 이런 초자연 현상을 재난 발생에 중요한 귀책 요소로 해석했다고 하겠다.

여섯째, 미디어는 국제적 갈등 이슈를 다룰 때 자국의 이해관점에서 프레임링 한다는 기존 이론이 『징비록』 내용에서도 발견되었다. 전시 기록자 류성룡은 적국인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방국이었던 지원과정에 갈등이 불거졌던 명나라에 대해 부정적 관점도 드러냈다. 이는 류성

룡이 조선의 국익주의 입장에서 임진왜란의 이해 당사자인 일본과 명나라를 평가했음을 엿보게 한다. 류성룡의 이런 자국중심의 기록방식은 오늘날 언론이 국가 분쟁 때 자국 관점에서 보도 프레임 차별로 구성하는 관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곱째, 뉴스 텍스트 유형에 따라 책임에 대한 귀인주체가 다르다는 기존 이론이 『징비록』 텍스트에서도 확인되었다. 일화 중심 텍스트에서는 개인에게 책임을 더 귀인했고, 주제 중심 텍스트에서는 조직이나 국가에 더 책임을 귀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난에 대한 책임을 귀인할 때 일화적 텍스트의 경우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반면에, 주제적 텍스트에서는 조직이나 사회에 책임을 묻는다는 기존 이론(Iyengar, 1996)의 견고성을 확인시켜 준다. 우리는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뉴스 텍스트 유형과 책임 귀인주체 프레임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선행 연구를 전쟁 기록서에서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론적 논의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우리는 이와 함께 『징비록』 텍스트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통해 몇 가지 현실적 함의점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전쟁 실패에 대한 책임 귀인의 비율은 국제, 개인, 그리고 조직 차원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가 없었다. 『징비록』 텍스트는 임진왜란 발발에 대해 다차원적인 요인을 다루기 위한 지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기록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겪은 조선의 재상이 사실을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서 그러한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다짐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류성룡은 임진왜란이 국왕이 인재를 적절히 다루지 못했고, 조정의 행정이 기능적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외교 관계를 잘 운용하지 못한 탓에, 그리고 약간의 불운으로 인하여 일어났다고 적고 있다.

둘째, 전쟁 극복에 대한 책임 주체는 개인 차원에서 그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관리가 전술 전략을 잘 구사했다거나, 불철주야 전란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거나, 장수가 솔선수범하여 용기 있는 행동으로 부대를 이끌었다거나, 백성이 자발적으로 협력했다거나, 국왕이 전후 수습을 시도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징비록』은 전란 극복의 지력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간으로부터 나온다는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통찰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필자는 백성이나 의병 개인 한 사람의 공적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셋째, 왕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는 왕정제 국가에서 일어난 전시상황에서 왕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논하지 않은 것은 기록자의 한계이다. 임진왜란 원인의 책임이야말로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에게 있었지만, 그에 대한 비판은 미약했다. 전시 재상 류성룡이 왕에 대한 불충을 경계했던 조선사회의 유교문화를 거역하고, 왕의 책임론을 기록으로 남기기는 물론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능이 적어도 조선의 왕에 대해서는 같은 크기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넷째, 임진왜란 7년을 기록한 『징비록』 분석을 통해 우리는 전쟁과 같은 국가 재난에서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진 관리들의 잘못된 사회 심리적 집단사고(group think)가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졌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본의 침략이 없을 것이라는 당파에 따른 다른 보고서 채택, 임진왜란 전투의 첫 승리자였던 신각을 규율을 따르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가짜뉴스에 의해 처형한 점, 전쟁 공신인 류성룡을 전쟁 간 갈등으로 탄핵한 점은 모두 잘못된 집단사고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심재철, 2019). 한 국가에 위기는 늘 찾아온다. 하지만 위기의 형태와 작동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위기는 피할 수 없다. 전쟁재난에 대한 『징비록』의 기록은 우리가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맞았을 때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위기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가 『징비록』 분석 결과를 통해 전란의 실패와 원인, 극복의 과정에 중요했던 요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류성룡이 밝힌 “지난 일의 잘못을 징계하여, 뒤에 환난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은 무망하게 끝날 수 있다. 이 연구는 오늘날 국가 위기환경에서도 시사점을 준다. 국가의 안존(安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력과 함께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 국민과의 유기적 소통, 그리고 대외 주변 국가에 대한 정세 파악과 지속적인 외교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한 국가의 전쟁 위기는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 연구의 가치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징비록』을 뉴스 텍스트로 평가하고 임진왜란의 실패와 극복책임을 어떻게 귀인하고 있는지를 밝힌 최초의 실증 연구로써 역사적 전쟁 기록물에 대한 방법론적 지평을 넓혔다. 고전 기록물을 저널리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과거 기록물을 현대 이론에 적용해 연구할 수 있다는 통찰을 주었다. 둘째, 전쟁 실패와 극복에 대한 프레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 기록물이 후대에 전달하고자 하는 역사적 교훈을 체계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는 『징비록』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뉴스 프레임 방식과 책임 귀인 주체자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편적인 이론적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추후 연구에서 수정하고 발전시켜야 할 한계점도 있다. 『징비록』 텍스트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임진왜란의 실패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주체와 요인을 충분히 밝혀내기는 어렵다. 비록 『징비록』이 현장 중심의 취재를 바탕으로 쓴 당대의 독보적인 기록서이지만, 임진왜란에 개입된 중국이나 일본에도 현장을 토대로 직접 작성된 기록물이 있는 만큼 국가 간 비교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임진왜란의 원인과 극복의 문제를 조선만의 책임이 아닌 국제 차원으로 넓혀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역사적 기록물, 예컨대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같은 현장 탐문기반의 역사 기록물과 문헌들을 언론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References

- Bennett, W. L. (2016). *News: The politics of illus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ird, S. E., & Dardenne, R. W. (1988). *Myth, chronicle, and story: Exploring the narrative qualities of news*. Newbury Park, CA: Sage.
- Choi, H. (2016). JingBiRok, Bestseller in East Asia, *Ahndonghak*, 15, 49-67.
- Chung, H.-E. (2021). Jingbirok's focus of descriptions and influences on later generations. *Gughag yeon'gu*, 46, 175-210.
- Churchill, W. S. (1959). *The Second World War : Abridged Edition With an Epilogue on the Years 1945 to 1957*. London : Cassell & Co., Ltd.
- Chyi, H. I., & McCombs, M. (2004). Media salience and the process of framing: Coverage of the Columbine school shooting.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1), 22-35.
- de Beer, A. S., & Merrill, J. C. (2004). *Global journalism: Topical issues and media systems* (4th ed.). Boston: Allyn & Bacon.
- Dimitrova, D. V., & Strömbäck, J. (2005). Mission accomplished? Framing of the Iraq war in the elite newspapers in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Gazette*, 67(5), 399-417.
- Edy, J. A., & Meirick, P. C. (2007). Wanted, dead or alive: Media frames, frame adoption, and support for the war in Afghanistan. *Journal of communication*, 57(1), 119-141.
- Entman, R. M.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s in narratives of the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1(4), 6-27.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Entman, R. M. (2007). Framing Bias: Media in the Distribution of Power. *Journal of Communication*, 57(1), 163-173.
- Gamson, W. A.,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 1-37.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Berkel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Harvard University Press.
- Hoskins, A., & O'loughlin, B. (2010). *War and media*. Hoboken: John Wiley & Sons, Inc.

- Houston, J. B., Pfefferbaum, B., & Rosenholtz, C. E. (2012). Disaster news: Framing and frame changing in coverage of major US natural disasters, 2000–2010.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9(4), 606-623.
- Hume, J. (2000). *Obituaries in American culture*. Univ. Press of Mississippi.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Iyengar, S. (1996). Framing responsibility for political issue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46(1), 59-70.
- Jang, J. (2019). Historical overview of JingBiRok, *Chindan hakpo*, 133, 269-293.
- Kamhawi, R. (2002). *Television news and the Palestinian Israeli conflict: An analysis of visual and verbal framing*. Paper presented at the Visual Communication Division AEJMC, Miami Beach, FL.
- Karamshuk, D., Lokot, T., Pryymak, O., & Sastry, N. (2016, November). Identifying partisan slant in news articles and twitter during political crises.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Informatics* (pp. 257-272). Springer, Cham.
- Kim, S. H., Carvalho, J. P., & Davis, A. G. (2010). Talking about poverty: News framing of who is responsible for causing and fixing the problem.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7(3), 563-581.
- Kim, S. H., & Tellen, M. W. (2017). Talking about school bullying: News framing of who is responsible for causing and fixing the problem.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4(3), 725-746.
- Kim, Y.-J., & Lee, B. (2017). A study on ‘non-official printed newspaper’ in Joseon Dynasty.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85(5), 7-29.
- Knobloch, S., Patzig, G., Mende, A. M., & Hastall, M. (2004). Affective news: Effects of discourse structure in narratives on suspense, curiosity, and enjoyment while reading news and novels. *Communication Research*, 31(3), 259-287.
- Lee, J. (2001). *JingBiRok*, Seoul: Seoae memorial foundation.
- Lee, W., & Kim, C. (2019). Multidimensional memory frame for soldier memorial : Through analysis of memorials of 46 victims of Cheonan Corvette Sinking. *Journal of Spiritual & Mental Force Enhancement*, 56, 45-73.
- Lee, W., Shim, J., & Shim, J. (2008). Media salience and the dynamic process of news frame changing : Coverage of the Virginia Tech shootings in Korea and the US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 Communication Studies*, 52(1), 386-412.
- Lim, C. (2020). *Mencius of Korea: Journalist, Lee Yul-gok*. Seoul: Yeolin Books.
- Montgomery, K. C. (1990). *Promoting health through entertainment television in mass communication and public health: Complexities and conflicts*. Newbury Park, CA: Sage.
- Norris, P. (1995). The restless searchlight: Network news framing of the post-Cold War world. *Political Communication*, 12(4), 357-370.
- Pan, Z., & Kosicki, G. M. (1993). Framing analysis: An approach to news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 10(1), 55-75.
- Park, J.-C. (2018). A collision between historical records, the choice and exclusion -Focusing on Jingbirok and Nanjungilgi-.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HSS21)*, 85(5), 7-29.
- Park, J. Y. (2020). *News story: How to write narrative news*. Seoul: Ichae.
- Shim, J. (2019). *Ryu Seong Ryeong's leadership*, Seoul: Bupmunsa.
- Stephens, M. (1997). *A history of news Fort Worth*. TX: Harcourt Brace.
- Stocking, S. H., & Gross, P. H. (1989). *How do journalists think? A proposal for the study of cognitive bias in newsmaking*. Bloomington, IN: ERIC Clearinghouse on Reading and Communication Skills.
- van Dijk, T. A. (1988). *News as discourse*. University of Groningen.
- van Efferink, L. (2019). *Germany's 'war on terror': Exploring frames and imaginations in practical and popular geopolitics*. ETHOS e-theses online service British Library.
- Retrieved from <https://ethos.bl.uk/OrderDetails.do?uin=uk.bl.ethos.792908>
- Yoon, J. (2019). A study on the improving the leadership of weapons development through the lessons of Jingbilok & Nanjungilgi,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30(2), 55-76.
- Yoon, Y. (2019). *Introduction to Media Analysis*(pp. 184-186). Seoul: Communication Books.

최초 투고일 2021년 08월 13일
 게재 확정일 2022년 04월 01일
 논문 수정일 2022년 04월 11일

부록 I. 참고문헌

- 김영주·이범수 (2017). 조선시대 민간인쇄 조보(朝報)의 언론사적 의의. <한국언론정보학보>, 85호, 7-29.
- 박진철 (2018). 역사 기록의 충돌, 그 선택과 배제 - 『징비록(懲毖錄)』과 『난중일기(亂中日記)』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9권 5호, 867-878.
- 박재영 (2020). 뉴스 스토리: 내러티브 기사의 작법과 효과. 서울: 이체.
- 심재철 (2019). <서애 류성룡의 리더십> (251-309). 송복외 공저, 서울: 법문사.
- 임철순 (2020). <한국의 맹자 - 언론가 이울곡>. 서울: 열린책들.
- 윤영민 (2019). <미디어 내용분석 입문> (184-186). 커뮤니케이션북스
- 윤종성 (2019). 『징비록』과 『난중일기』 교훈을 통한 국방무기개발 리더십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0권 2호, 55-76.
- 이완수·김찬석 (2019). 군인 추모에 대한 다차원적 기억 프레임. <정신전력연구>, 56호, 45-73.
- 이완수·심재웅·심재철 (2008). 미디어 현저성과 프레임 변화의 역동적 과정. <한국언론학보>, 52(1), 386-412.
- 이재호 (2001). <국역 『징비록』>, 사단법인 서애선생 기념사업회.
- 장준호 (2019). 『징비록』의 사학사적 검토. <진단학보>, 133호, 269-293.
- 정해은 (2021). 『징비록』의 서술 중점과 후대 영향력. <국학연구>, 46호, 175-210.
- 최희수 (2016). 징비록, 동아시아의 베스트셀러. <안동학>, 15호, 49-67.

임진왜란 원인과 책임에 대한 귀인 프레임 구성

류성룡의 『징비록』 내용분석을 통해

김문환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문안나

(충북대학교 초빙조교수)

이완수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계열 교수)

심재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명예교수)

이 연구는 류성룡의 『징비록』이 임진왜란 원인과 극복책임에 대한 귀인을 어떻게 프레임하고 있는지를 밝혀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이 텍스트가 저널리즘 관점에서 뉴스의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고, 전쟁의 원인(혹은 실패)과 극복책임을 어디에 귀인하며 그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사 유형에 따른 책임 귀인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징비록』 텍스트는 6하 원칙에 따른 대본 구조 또는 비유법을 활용하는 수사학적 구조를 갖추고, 시·공간적 프레임을 제시하는 뉴스 기사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뉴스 텍스트로서 『징비록』 프레임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이론적 함의점을 제시했다. 첫째, 미디어는 사회가 강조하는 가치와 덕덕, 약점과 강점을 선별적으로 선택, 강조, 상술해 특정 측면을 현저하게 드러낸다는 프레임 이론을 『징비록』 텍스트 내용분석에서 확인했다. 둘째, 미디어는 사회적 갈등 문제를 다룰 때 문제의 정의, 원인진단,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 그리고 해법 프레임을 제시한다는 구성방식을 『징비록』 내용분석을 통해 관찰했다. 셋째, 미디어는 재난의 원인과 책임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프레임 한다는 이론적 사실을 『징비록』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넷째, 미디어가 제시하는 재난 문제에 대한 책임 프레임은 왕정제와 같은 정치시스템에 따라 다르게 구축되고, 해석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다섯째, 미디어는 국제적 갈등 이슈를 다룰 때 자국의 이해관점에서 프레임 한다는 기존 이론이 『징비록』 내용에서도 확인했다. 여섯째, 뉴스 텍스트 유형에 따라 책임에 대한 귀인주체가 다르다는 기존 이론이 『징비록』 텍스트에서도 확인했다. 즉, 일화 중심 텍스트에서는 개인에게 책임을 더 귀인하고, 주제 중심 텍스트에서는 조직이나 국가에 더 책임을 귀인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이 연구는 몇 가지 현실적 함의점도 보여준다. 첫째, 전쟁 실패에 대한 책임 귀인의 비율은 국제 차원, 개인 차원, 조직 차원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제 차원에서는 강한 적군과 비실용적인 외교관계가, 개인 차원에서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한 왕의 무능력과 함께 직무를 소홀히 한 채 도망간 장수의 무책임한 태도가,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는 정부의 행정 기능 마비가 전쟁 실패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쟁 극복에 대한 책임 귀인의 비율은 중앙관리의 전술 전략, 장수의 술선수법, 의병참여 등 백성의 자발적인 협력, 그리고 국왕의 위기극복 노력과 같은 개인 차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왕이 모든 의사 결정을 내리는 왕정제 국가에서 일어난 전시상황에서 왕에 대한 책임문제 프레임이 비중 있게 언급되지

않았다. 다섯째, 전쟁과 같은 국가 재난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보여주었다. 여섯째, 당파 싸움에 따른 심리적 집단사고(group think)가 대재난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통해 정부 내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준다. 『징비록』 텍스트를 저널리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과거 역사 기록물을 현대 이론에 적용해 연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핵심어 : 징비록, 임진왜란, 뉴스 프레임, 책임 귀인, 전쟁 실패와 극복